



WORLD
WARCRAFT
BATTLE FOR AZEROTH



비가

크리스티 골든 저



© 2018 Blizzard Entertainment, Inc.

들으라, 달빛 아래에서

들으라, 강 옆에서

들으라, 사랑하는 이의 옆에서,

죽음의 외침을

죽음의 침묵 위로 불어오는 바람의 속삭임을

영원히 계속될 나의 비가를

세계수의 이야기를

모든 꿈이 스러져간 이야기를

위대한 가지가 품었던 꿈의 이야기를

상아탑에서

만물은 순수하게 태어난다.
가장 오래된 나무도 한때는 연약한 묘목이었으며,
타오르는 태양조차도 유년기가 있었다.
오, 엘룬이여,
너무나 다정한 눈물을 흘리시니
한때 우리 것이었던
순수함을 생각하심이라.

‘챙, 챙!’

검과 검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검을 나눈 둘은 재빨리 거리를 벌리고 원을 그렸다. 둘 중 나이 많은 남자, 머리도 수염도 달빛처럼 하얗게 센 남자가 공격하는 척하더니 검을 치켜들고 후려쳤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빠르고 유연한 동작으로 검을 막았고 햇빛에 반짝이는 검이 충돌하면서 불꽃이 튀었다.

“제법이군.” 겐 그레이메인은 공격하면서도 툭툭거렸다. 젊은이가 다시 막아냈다. “그러나, 막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지. 이제 슬슬-”

순간, 그레이메인은 검을 세워 간신히 안두인 린의 공격을 막았다.

“공격하라고요?” 안두인이 짓궂은 미소와 함께 팽팽하게 버티는 그레이메인의 검을 내리눌렀다. 그러다 안두인의 태양 빛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그의 눈을 가렸고, 안두인은 그레이메인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리란 걸 깨닫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팽팽하게 버티던 길니아스 왕이 돌연 칼에 힘을 뺐고, 안두인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비틀거렸다. 그 틈을 노려 그레이메인이 젊은 왕만큼이나 빠르게 칼을 휘둘렀다. 칼날이 안두인의 몸을 베기 직전, 그레이메인은 손목을 비틀어 검면으로 그의 몸을 쳤다. 안두인은 신음하며 선왕의 검 살라메인으로 그레이메인의 공격을 막았지만, 그 여파로 손에서 힘이 풀렸다. 살라메인은 안두인의 손에서 벗어나 스톰윈드 왕궁 정원 잔디밭에 떨어졌다.

안두인이 숨을 몰아쉬며 떨어진 검을 주웠다. “잔소리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전장에서 투구를 쓸 겁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겠지.” 그레이메인이 짓궂은 웃음을 머금으며 대답했다. 격렬하게 움직인 데다 축스러움까지 겹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안두인은 고소해 하는 그레이메인이 밉지 않았다.

“그보다도, 머리를 자르는 게 좋지 않겠나. 전장에서는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을 걸세.”

안두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대련할 때는 잘 묶을 테니까요.”

그레이메인이 고개를 휘휘 저으며 말했다. “린 가문 사람들은 왜 그리 머리카락에 집착하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스톰윈드 경비병 한 명이 다가와 절도 있게 경례하며 말했다. “폐하, 첩보단장 쇼가 돌아왔습니다.”

안두인이 긴장한 눈으로 그레이메인을 흘깃 쳐다봤다. 마티아스 쇼가 알현을 기다린다는 말에 두 사내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다. “급한 일입니까?” 안두인이 물었다.

“편하신 시간에 뵙겠다고 했습니다.” 경비병이 대답했다.

젊은 왕은 다소 마음이 놓였다. “다행이군요. 쇼 단장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지도실에서 그레이메인 왕과 절 기다리라 전하십시오.”



옷을 갈아입은 그레이메인과 안두인은 반 시간 정도가 지나서 산뜻한 모습으로 지도실에 들어왔다. 마티아스 쇼는 훈련받은 전문가다운 눈빛으로 커다란 스톰윈드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안두인은 회의를 대부분 이 방에서 했다. 철없는 꼬마였을 때 몰래 들어와 병사와 보급품, 무기 등을 나타내는 모형을 가지고 놀던 방이었는데, 이제는 전략을 수립하는 장소로 왕의 막중한 책무를 상징하는 방이 되었다.

두 사내가 들어서자 쇼가 돌아서며 허리를 숙였다.

“나쁜 소식을 들고 온 게 아니라니, 단장의 얼굴을 보는 게 반갑네요.” 안두인이 짓궂게 말했다.

그레이메인은 웃음을 참는 듯 보였지만 첩보단장은 웃음기 하나 없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이럴 때도 있는 법이지요. 폐하, 지시하신 대로 오그리마 곳곳에 요원을 심었습니다.”

실바나스 윈드리너가 최근에 아라시 고원에서 저지른 만행을 목격한 안두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비열한 수단이라도 가리지 않는 뱀시 여왕에게 측은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 후, 안두인은 그레이메인과 마티아스에게 얼라이언스가 호드를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겠지만, 호드 지도자를 무턱대고 믿지도 않겠다는 말을 했다.

‘윈드리너, 블라이트콜러, 사울팽을 비롯해 오그리마에서 중요한 인물은 모두 감시해 주십시오. 몰래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자들이 선술집에서 시킨 술 색깔마저 얼라이언스의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십시오.’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들은 쇼는 한쪽 눈썹을 추켜올리며 ‘흥미로운 방식으로군요.’라고 말했을 뿐, 반대하지는 않았다.

안두인이 물었다. “저번 일은 진척이 있었습니까?”

“부하들은 이번 임무를... 즐겁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첩보단장이 달갑잖다는 말투로 대답했다.

“사상자는?”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다행이군요. 더 보내십시오.”

젠이 동의하며 하얗게 센 머리를 끄덕였다.

쇼는 동의하지 않는 듯 짙고 붉은 눈썹을 찌푸렸다. “여기서 요원을 더 보내면, 오그리마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희 요원 열두엿 명 정도는 마주치게 될 겁니다.”

“마주치면 좀 어떻습니까. 계속 쓸만한 정보를 보내올 테죠?” 안두인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실바나스 대족장과 대군주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블라이트콜러는 그 점이 불만이고요.”

안두인이 젠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쇼에게 말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요. 선왕은 바로크 사울팽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저 역시 가로쉬 헬스크림의 재판에서 사울팽이 증언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사울팽은 명예로운 행동으로 오랫동안 존경받은 인물입니다. 그도 실바나스의 본성이 어떤지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 같군요.” 안두인은 사울팽이 실바나스가 아라시 고원에서 벌인 비열한 짓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일이 대군주의 반감을 샀는지 궁금했다. 아니, 내심 그렇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안두인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울팽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뱀시 여왕은 명예보다 힘을 믿죠.”

“그 나이 든 오크를 감상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릅니다.” 쇼가 경고했다. “스툼윈드가 짓밟히고 폐하의 할아버님이 암살당했던 일차 대전쟁에서 싸웠던 용사입니다.”

안두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예라고는 모르는 뱀시보단 명예로운 오크가 낫겠죠. 그리고 사울팽과 블라이트콜러가 반목한다면 무조건 환영할 일 아닙니까.”

“블라이트콜러가 그 썩은 머리로 꾸미는 일이 뭐가?” 젠이 쇼에게 물었다.

“작전 계획입니다.”

“어떤 작전을 말하는 거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족장과 대군주는 작전 계획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가 있지만 말이죠.”

안두인의 황금색 눈썹이 활처럼 휘었다. “그게 뭐죠?”

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실리더스입니다.”



엘프 파수꾼 둘과 드워프 셋을 달고 달의 신전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한 코드레사 브라이어보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최근에 긴급한 대장 하나가 일행을 알아보자마자 전령을 보냈고 티란데 위스퍼윈드는 코드레사와 그녀의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하라고 일렀다.

탐험가 연맹 원정대의 대표 가빈 스타우트암은 신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언포지만큼이나 근사한 석조 건물이로군.”

코드레사의 지친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코드레사는 지난 몇 주를 보내며 이들 드워프에게정이 들었다. 아제로스의 대변자 마그니 브론즈비어드는 얼라이언스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했다. 아제로스에 치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에 탐험가 연맹은 아제라이트라는 신비한 물질을 분석할 탐험대를 실리더스에 파견했다. 타락한 티탄 살게라스가 실리더스의 대지에 거대한 칼을 무자비하게 꽂아 놓자 지표면에 아제로스의 정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라이언스는 이 아제라이트라는 놀라운 물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탐사대의 목적지가 고블린의 영역이라 티란데는 코드레사와 파수꾼에게 탐사대 경호 임무를 맡겼다.

코드레사는 드워프를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이 땅딸막하고 시끄럽고 억센 억양만큼이나 고집 세며, 땅속에 묻혀있어야 할 것들을 파내는 선수이자,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땅만 보고 사는 족속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가빈 일행과 친해지자 드워프에 대한 편견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코드레사는 물론 파수꾼 모두가 거대한 검 근처에 사는 고블린 군집의 규모, 공격성, 그리고 오만함을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 평생 후회할 일을 겪었다. 하룻밤 만에 파수꾼과 탐험대 여럿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죄책감에 빠진 코드레사는 남은 일행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위대한 달의 신전에 대한 가빈의 평을 다른 나이트 엘프가 들었다면 모욕이라고 느꼈겠지만 코드레사는 그렇지 않았다. 코드레사는 가빈의 절절한 목소리에서 경의와 존경을 느끼고 미소지었다.

“아이언포지도 분명 굉장하겠지요. 하지만 달의 신전에는 아이언포지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오? 그게 뭡니까?” 인지 아이언피스트가 물었습니다.

“달샘이랍니다.”

“신록수호자의 숲에서 달샘을 봤소.” 아르위스 블랙스톤이 끼어들었다. “정말 아름다웠지. 피로가 싹 가시더구먼!”

달샘은 여사제의 축복과 치유의 물이 가득 찬 소중한 신성한 존재였다. 달샘은 모두 ‘정말 아름다웠지만,’ 다르나서스의 달샘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코드레사는 드워프들이 달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며 즐거워했다.

달의 신전에 들어서자 드워프들이 조용해졌다. 불모지와 다름없는 끔찍한 실리더스를 해마다 신록이 가득한 신전에 들어서자 말문이 막혔던 것이다. 멍하니 입을 벌리고 주위를 둘러보던 드워프의 눈이 신전 중앙의 거대한 석상에 멎었다.

“하이드네예요. 최초로 엘룬을 섬긴 대여사제죠.” 코드레사가 설명했다. 달의 신전에 처음 온 사람은 대개 물이 흐르는 그릇을 높이 들고 하얗게 빛나는 나이트 엘프 여성의 석상이 엘룬이라고 생각한다. 신전 한쪽에서는 엘프 음유시인이 엘룬의 빛만큼이나 포근하고 흐르는 물소리 만큼이나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여사제 중 하나인 아스타리 스타시커가 다가와 코드레사를 포옹했다. “오신다는 전갈을 받았어요.” 아스타리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드워프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다. “길고 위험한 여정이었다고 들었어요. 동료를 잃으셨다니 정말 유감이군요. 편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기 바라요. 음식도 달샘의 물도 얼마든지 있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신성한 샘물에 몸을 담그는 거겠지만요. 원하시면 갈아입을 옷도 준비되어 있어요.”

가빈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친절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꼴이 말이 아니라 숙녀분들께 폐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가빈의 얼굴은 코드레사가 쳐다보기도 전에 새빨갳게 달아올랐다.

아스타리가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개인 공간도 있습니다.”

“흠흠, 그렇군요.” 더 붉어질 수 있을까 싶던 얼굴을 더 붉히며 가빈이 말했다. “그렇다면, 감사히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신전의 달샘은 일행 모두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컸다. 코드레사는 달샘의 물이 고통과 걱정과 슬픔을 씻어내리는 느낌보다 새로 사귄 친구들의 놀란 표정을 보는 게 더 즐거웠다. ‘그래, 친구야. 이제는 단순한 호위 대상이 아니야.’ 코드레사는 삼단 같은 암청색 머리카락을 등 뒤로 풀어 내리고 감사의 기도를 읊조리며 달샘에 몸을 담갔다.

물 때문에 웅웅거리는 소리였지만, 파수꾼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알았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을 떴다. 반가운 얼굴이 미소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텔라린!” 코드레사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텅기듯 일어나 앉았다.

부관 텔라린 서머문이 샘을 두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텔라린은 코드레사와 같은 파수꾼이었지만, 코드레사보다 어리고 계급도 낮았다. 코드레사는 대격변이 아제로스를 갈라놓았을 때부터 텔라린의 선배 노릇을 하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텔라린의 암청색 머리카락 아래 분홍빛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얼굴 문신을 선택하지 않았다. 언젠가 텔라린이 이야기했다. ‘꼭 통과 의례로 얼굴에 문을 새길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새기고 싶은 문신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텔라린이 말했다.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텔라린은 물 위로 머리만 겨우 내놓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드워프 일행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저들이 무사해서 다행이군요.”

“전부 무사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코드레사가 말했다. 달샘조차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막을 수는 없었다. “티란데 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적어 보냈어요.”

텔라린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말했다. “티란데 님이 직접 보고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뵈러 가야겠군요.” 코드레사가 달샘에서 일어나려 하자

텔라린이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코드레사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며 다시 앉았다. “티란데 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쉬고 오라고요.”

코드레사는 대답했다.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야겠지만, 솔직히... 조금 더 쉴 수 있어서 기쁘네요.”



잠시 후, 코드레사와 텔라린은 신전의 여사제에게 감사하며 작별을 고했다. 코드레사는 싸우는 대신 신전을 관리하는 온화한 사제들이 부러웠다. 자신도 텔라린도 견지 못한 길을 걷는 자매들이었기에.

엘룬의 대사제이자 파수꾼의 창시자 티란데 위스퍼윈드는 신전 위층에 있는 작은 개인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코드레사와 텔라린이 도착하자 티란데가 쓰던 서신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코드레사가 경례하며 말했다. “티란데 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실리더스 임무 실패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대사제는 말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일어서더니 코드레사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포옹을 푼 티란데는 한 걸음 물러서서 코드레사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파수꾼 코드레사, 그대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을 잃어서 크게 상심했겠지요. 하지만, 이걸 모두의 잘못입니다. 나, 말퓨리온, 안두인 왕과 그의 조언자 모두 실리더스의 고블린을 우습게 봤죠. 놈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른 거죠. 그대의 임무에 대해서라면, 그대는 위험한 땅을 가로질러 살아남은 이들을 집으로 데려왔고 귀중한 정보까지 가지고 귀환했잖습니까. 임무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티란데는 미소를 지으며 코드레사의 뺨을 가볍게 어루만지고 뒤로 물러섰다. “방금 안두인 왕에게 보낼 편지를 마무리하던 참이에요. 안두인 왕의 첩보원이 골치 아픈 새로운 정보를 보내온 모양이더군요. 거기에 대한 답신이지요.”

“저는 이만 물러갈까요?” 텔라린이 물었다.

“남아 있어도 돼요, 텔라린. 곧 공개될 정보니까.”

텔라린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티란데는 자리에 앉아 계속 말을 이었다. “아라시 고원의 비극 이후로 안두인 왕은 호드의 수도에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감시의 눈을 늘렸어요. 대족장과 그녀의 오른팔인 나타노스 블라이트콜러와 대군주 사울팽이 부대의 움직임에 대해 이견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티란데가 코드레사를 바라봤다. “그대가

실리더스에서 만난 고블린 문제도 작지 않지만, 지금 사울팽은 몇백이나 되는 호드 군사를 실리더스로 파견하려고 해요.”

코드레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몇백 정도의 호드는 문제가 안 됩니다.”

티란데가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다. “그게 추후 군대가 진군할 최적의 진군로를 탐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찰병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저도 그렇고 안두인 왕도 그렇고 호드가 아제라이트의 치명적인 사용법을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팽은 어떤 얼라이언스도 아제라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죠. 아제라이트가 힘의 균형을 호드 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코드레사는 속이 꽉 막힌 것 같았다. 안두인 린은 몇 달 전 다르나서스에 왔었다. 안두인과 말퓨리온, 티란데는 정확히 이러한 일에 대해 논의했다. 나이트 엘프와 드레나이만이 유일하게 실리더스에 침입하는 호드에 신속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의 보루였다. 그나마도 드레나이의 경우 군단과 전쟁을 치르며 전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였다. 그때부터 티란데는 만약을 대비해 느리지만 착실하게 살게라스의 사악한 검이 있는 지역으로 파견할 군대를 구축했다.

“그렇군요.” 코드레사가 대답했다. “불행히도, 저는 탐험가 연맹이 이미 마주하고 있는 위험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제들과 드루이드가 그렇듯 말입니다.”

“달샘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텔라린이 물었다.

이 세계의 다른 지역, 다른 시대에 나이트 엘프는 지옥 마력, 혹은 그와 비슷한 마력이 흐르는 땅에 달샘을 만들었다. 사제와 드루이드가 합심하여 자연의 힘에 고삐를 채웠고 엘룬이 축복했으며 신성한 물이 불안정한 땅을 흐르며 땅을 안정시키고 정화했다. 여러 집단이 실리더스에 파견되었다. 그 치유의 마법이 실리더스에서도 통하기를 기원하며. 그것은 살게라스의 검과 고블린의 탐욕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더 평화적인 방법이었다.

텔라린의 물음에 티란데가 대답했다. “아직은 알 수 없군요. 우리 치유사들이 아제로스를 치유하는 일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드가 살게라스의 검으로 간다면 치유사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준비를 시작해야 하죠.” 티란데는 작성하던 편지를 몸짓으로 가리켰다. “샐드리스 페더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경계를 최고 단계로 올리라고 말이죠.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한 번에 한두 대의 함선과 부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함대가 페탈라스에 집결하면 제 명령에 따라 살게라스의 검으로 진군할 준비가 될 테죠.”

샐드리스 페더문은 티란데 만큼이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어렸을 때, 가족이 불타는 군단에 학살당하고 고아가 된 샐드리스는 티란데를 두 번째 어머니로 여겼다. 샐드리스는 초대 파수꾼 중 하나였으며 오늘날까지 파수꾼을 지휘하고 있었다. 샐드리스는 지금 녹음이 우거진 페탈라스에 있는 정조준 오두막에서 나이트 엘프 군대를 감독하며 다양한 종족의 사냥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티란데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호드 군대가 대족장의 지지를 얻는다 해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도착에도 시간이 걸리고요. 사울팽을 따뜻하게 맞아 줄 기회는 충분할 테죠.”

티란데 위스퍼윈드는 미소지었다.



렌직은 가끔 오그리마의 SI:7 현장 요원 임무에 신물이 났다. 이유는 뻔했다. 실질적으로 조직의 다른 구성원은 모두 얼라이언스 종족인 탓에 들키지 않으려면 임무 시간의 팔 할은 모습을 아예 드러내지 않아야 했다. 나머지 이 할은 마법이나 아주 뛰어난 변장술이 필요했다. 당연하게도, 첩보 활동이 원활할 리 없었다.

렌직은 첩보부 부사령관이었다. 그리고, 고블린이었다. 그게 바로 마티아스 쇼가 호드 영토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를 들을 책임자가 렌직이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이유였다.

더할 나위 없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었지만, 그것도 이제 좀 식상했다. 그는 첩보원이자 도적이었으며, 솔직히 다른 사람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보수가 좋았던 데다가 렌직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극소수의 고블린 중 하나였다. 렌직은 무역왕 재스터 께리웁스의 지휘 아래 변질된 고블린의 모습을 경멸해도 문제없었다. 과연 께리웁스가 하는 것이 진정 ‘지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게다가 어렵게 쌓아 올린 명성을 잃을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렌직은 얼라이언스식 관점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렌직은 ‘모래 속의 검’ 사태 첫날부터 잡화상으로 위장하고 호드의 대도시에 잠입했다. 얼라이언스 첩보원은 모두 렌직에게 보고했다. 물론, 간접적으로. 렌직의 진짜 정체는 한두 사람밖에 몰랐고 그게 렌직에게도 좋았다.

꽤나 지루한 임무였다. 특히, 상인으로 위장한 덕택에 어둠을 틈타 몰래 돌아다닐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다. 상인보다 소문을 많이 듣는 직업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멋진 물건에 빠져 낯선 상인에게 속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었고 잡화상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코앞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다.

렌직은 그롬마쉬 요새 근처에 가판대를 차렸다. 요새에서 의심할 정도로 가깝지는 않지만, 드나드는 면면을 살펴볼 정도로 가까운 곳에... 그리고 무슨 표정을 하고 나오는지 알아볼 만한 거리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바로크 사울팽이 매일 의식을 치르듯 대족장을 만나러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특히 만족스러웠다. 보통 사울팽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들어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왔다. 실바나스가 해골 전투마를 타고 나와 미친 듯이 달리는 때도 가끔 있었다. 밴시 여왕은 감정을 별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입술을 거의 떼지 않은 채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오크와 완전히 동화된 것 같았다.

다시 말해... 임무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여느 때처럼 사울팽이 킁킁한 그롬마쉬 요새에서 밝게 빛나는 듀로타의 햇빛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평상시처럼 굳은 표정이었다.

렌직은 땀에 젖은 대머리를 닦았다. 수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나타노스가 대군주의 계획이나 태도 때문에 불만이라고 했다. '사랑에 눈 먼 강아지'. 렌직은 사랑에 빠져 은밀하게 포세이큰의 여왕을 바라보는 나타노스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어딘가 오싹했다.

어둠의 여왕의 용사에 대해 생각하던 그 순간, 분노한 외침이 들려왔다.

“사울팽!” 거의 인간 같은 목소리, 나타노스였다. 산뜻한 새 육체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사울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그리마의 정문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바로크 사울팽!” ‘이런, 이번에 나타노스가 정말 화가 났군. 재미있어지겠는데.’ 밖으로 나온 나타노스는 뛰지 않았지만, 뛰고 싶어하는 게 뻔히 보였다. “경비병! 막아라!”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모두가 말을 잃고 눈 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봤다. 습관적으로 가판대에서 한쪽 눈을 떼지 않던 렌직도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한동안, 두 명의 경비병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울팽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섰지만, 사울팽을 차마 막아설 생각은 못 하고 우물쭈물했다. 무기도 들어 올리지 않았다.

‘이거, 저 친구들 처지가 불쌍한걸. 뭘 하든 높으신 분 심기를 거스르는 셈이니.’

사울팽이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왼쪽 경비병과 오른쪽 경비병을 차례로 노려봤다. 누구도 사울팽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덜덜 떨었다. 대군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크는 포세이큰보다 훨씬 크고 강했다. 특히, 사울팽은 엄청나게 크고 굉장히 강했다. 새로 장만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나타노스도 탐처럼 우뚝한 사울팽 앞에서는 난쟁이처럼 보였다.

“누가 가도 된다고 했습니까?” 나타노스가 쏘아붙였다.

“자네는 회의에 없었을 텐데.”

침묵.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훑쳐 듣던 렌직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다. 사울팽 역시 의도를 담고 말한 것이었는지, 눈을 작게 뜨더니 가슴 속 깊이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그르렁거렸다.

“자네 일이 아닌 일에 나서지 말게, 블라이트콜러. 자네는 실바나스의 용사지 대군주가 아니다.”

“전 생전에 순찰자였습니다. 인간으로는 유일하게 인정받은 순찰자였고요. 생전에도 실바나스 여왕님을 섬겼고 지금도 여왕님을 섬깁니다. 난 당신이 상상도 못 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상상 따윈 믿지 않네. 사실과 숫자, 전략, 그리고 무기를 믿지. 그게 내가 아는 것이네, 블라이트콜러. 자네가 새끼 망아지처럼 정신 못 차릴 때 나는 전장에 있었네.”

나타노스가 아직 인간이었다면, 분명 얼굴이 파랗게 질리거나 우유처럼 창백해졌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뻗뻗하게 서서 타는 듯한 붉은 눈으로 사울팽을 노려볼 뿐이었다.

렌직 근처에 조끼와 모자까지 갖추고 나와 내깃돈을 받는 고블린이 있었다. 렌직은 킬킬대며 웃었다. 누가 고블린이 아니랄까 봐 이 상황에서도 돈을 벌고 있었다. 렌직은 점점 뜨거워지는 현장으로 눈을 돌리고 내깃돈을 받는 고블린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 말했다.

“블라이트콜러에 백 골드.” 모두 사울팽에 걸었으리라. 하지만 인간과 오랜 시간 일한 렌직은 이들이 자존심을 지키거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종종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렌직이 보았을 때 블라이트콜러에게는 아직 자존심과 사랑에 신경 쓰는 인간적인 면이 남아있었다.

나타노스가 말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대군주. 그래서 꼭 참고 경고하는 거죠. 한 번만 더 여왕님의 허락 없이 자리를 뜨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사울팽은 이 순간 가장 상대를 자극할 행동을 했다. 크게 웃었던 것이다..

그러더니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자네만 참고 있다고 생각하나, 애송이? 나도 자네의 인간 같은 머리를 날려 버리지 않으려 인내하고 있네. 하나 알려주지. 존중은 얻는 걸세. 그리고 자네는 아직 내 존중을 얻지 못했네.”

“당신의 피로 오그리마의 땅을 붉게 물들이면 그 잘난 존중을 얻을지도 모르겠군요.”

사울팽은 오크 특유의 구부정한 허리를 최대한 펴고 블라이트콜러를 안을 듯 팔을 활짝 펼쳤다.

“언제든 자신 있으면 덤비게! 그날은 대족장이 새 장난감을 찾으러 가는 날이겠군.”

나타노스 블라이트콜러가 평소답지 않게 분노의 고함을 질렀다. 렌직은 한편 놀라면서도 가슴이 뛰었다.

‘이번에 크게 한몫 잡겠군.’ 렌직은 포세이큰 용사가 대군주에게 돌진하자 기대감에 부풀어 두 손을 마주 비비며 생각했다.



“싸움이요?” 소식을 들은 티란데는 안두인 만큼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티란데의 보좌관인 파수꾼 코드레사는 가까스로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가까스로.

“네, 싸움입니다. 부사령관이 직접 보낸 보고입니다.” 쇼가 확인하듯 말했다.

안두인은 왕실 정원 탁자에 모인 얼굴들을 돌아봤다. 핵심 인물인 티란데 위스퍼윈드와 드레나이 예언자 벨렌이 오는 날엔 스톰윈드 지도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겠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녹음과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야외에서 군사 전략을 논의하고자 했다. 적어도 티란데와 코드레사는 이 선택을 달갑게 여기리라 확신했다. 안두인은 오늘 회의의 주재자이자 일국의 왕으로서 부족함 없이 처신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사울팽과 나타노스 블라이트콜러가 벌인 주먹다짐에 대해 논의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안두인이 티란데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다르나서스에서였다. 군단과의 전쟁을 지원해준 나이트 엘프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 발견된 아제라이트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모두가 텔드랏실과 엑소다르가 칼림도어 대륙에 있는 얼라이언스 최후의 보루라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벨렌과 티란데는 살게라스의 검과 그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물질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누가 이겼지?” 겐 그레이메인이 겐 그레이메인답게 물었다.

쇼가 대답했다. “사울팽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예상외의 접전이었다고 하더군요. 사울팽과 블라이트콜러 모두 제대로 서지 못할 지경이었답니다.”

“사울팽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던가요?” 안두인이 물었다.

“그 반대입니다. 나타노스가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안두인이 조용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기어이 일이 터졌군요.”

모두의 시선이 안두인에게 모였다. “무슨 일 말인가?” 겐이 물었다.

젊은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결정이 내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실바나스가 나타노스가 아닌 사울팽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사울팽이 곧 군대를 움직일 것입니다. 쇼, 당신의 첩보원들의 보고를 종합하면, 나타노스는 줄곧 사울팽의 작전을 반대했었죠. 자원 낭비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쇼가 대답했다.

“그럼 이게 최후의 결정타로군요. 호드 군대가 실리더스로 진군할 겁니다.”

벨렌이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갑자기 서두르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마그니가 호드와 얼라이언스 양 진영에 아제라이트의 출현과 그 능력을 진즉에 알려주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인제야 움직이는 거지? 사울팽이 무언가 알고 있는 건가?”

그레이메인이 말했다. “어렵게 생각할 거 뭐 있나. 늙은 전사가 싸우고 싶은 게지.”

티란데가 말했다. “아니요. 사울팽은 그리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해 병사와 자원을 낭비할 위인이 아니죠. 이렇게 강력히 밀어붙인다는 건,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놈들이 아제라이트를 무기화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쪽에 걸지.”

“저도 같은 쪽에 걸죠, 그레이메인.” 티란데가 반짝이는 눈으로 안두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습니다, 안두인 왕이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대의 서신을 받고 페더문 장군에게
병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렸습니다. 모두 동의한다면 즉시 파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호드보다 먼저 실리더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기가 안두인의 등줄기를 쓸고 지나갔다. 차가운 기운이 뱃속에 남았다. 안두인이 어린 시절
겪었던 모든 일, 견디고 잃어버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다. 무기, 군대, 병사,
도적, 폭탄, 독, 학살... 온갖 잔학한 행위가 일어나는 전면전이 목전에 다가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아제라이트까지 엮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수만,
아니 수십만이 죽어 나갈 것이다.

안두인은 자신에게 몰린 시선을 느끼며 침을 꿀꺽 삼켰다. 티란데에게 감사해야 할지 그녀를
저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천 년 동안 온갖 전쟁에 참가한 티란데는 정작 전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동의하시면 즉시 파견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전투 목적을 달성할 때만큼이나 정확하고 신중하게
이 한 문장으로 전쟁을 예둘러 말한 것이다. 그런 그녀가 안두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의 첫발을 내딛는 일이었다. 안두인은 부대만 파견하고 교전은 피하는 바로크 사울팽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울팽과 나타노스가 주먹다짐을 한 것일까? 실바나스가 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안두인은 생각하는 와중에도 그것이 평화를 갈망하는 아이나 할 법한 생각이라 치부하며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지금까지 얼라이언스와의 전쟁에 대한 열망을 명명백백하게,
그것도 여러 번 드러냈다.

안두인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숨을 깊이 들이켰다. ‘빛이여, 바라오니 저를 인도해 주소서.’

“부대를 움직이십시오, 대여사제님.” 안두인이 나이트 엘프 지도자에게 말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낭랑하고 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빛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기에 편안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
“부대를 보내 얼라이언스를 보호하십시오. 호드가 정말 실리더스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거점이 있을 겁니다. 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티란데 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정찰과 억제 전술을
선호하지만요.”

“저도 그럴 생각이예요. 전쟁은 끔찍한 일이죠.” 티란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포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에 떨리는 것이었다. 안두인이 백 년을 더 산다 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그 공포를.

티란데가 벨렌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그의 생각을 묻는 듯 청록색 눈썹을 가볍게 추켜세웠다.
안두인은 어찌면 티란데보다 더 많은 전쟁을 겪었을 드레나이 벨렌에게 연민을 느꼈다.

벨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군단을 몰아낸 뒤 평화가 찾아오리라 생각했는데... 나도 자네들과
생각이 같네. 부대를 보내게, 대여사제여. 그들이 필요할 일이 없기를 기도하지.”

그렇게 결정은 내려졌다.

전투의 부름

사냥꾼의 나팔이 울렸다!
전투의 부름, 지금 당장 오라고,
아끼는 모든 것을 지키라고,
이 도시와
이 달샘과
저녁 산들바람의 부드러운 노래를 지키라고,
우리를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화답한다.

코드레사는 대드루이드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와 나란히 신전 정원을 걸었다. 티란데는 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벨렌과 안두인 린, 겐 그레이메인과 함께 스톱윈드에 남기로 했다. 대여사제는 최근 상황 변화를 말퓨리온에게 전하라고 코드레사를 다르나서스로 돌려보냈다.

위대한 대드루이드가 에메랄드의 꿈에 머물다 돌아온 것도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말퓨리온의 존재는 여전히 낯설었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는 나이트 엘프 최고의 드루이드이자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자연과의 유대가 너무 깊어 온몸으로 그 유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머리에는 수사슴의 뿔이, 탄탄한 근육질 팔을 따라서는 깃털이 날개처럼 돋아 있었고 발은 거대한 고양이 같았다.

자연처럼 이 위대한 스승, ‘산도’는 온화하면서도 사나웠다. 하지만, 강력한 정신력과 의지를 가진 지각 있는 존재로서 말퓨리온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말퓨리온이 코드레사와 함께 거닐고 향초를 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최근 실리더스를 다녀왔지.” 말퓨리온이 은빛잎새 덤불로 몸을 숙이더니 잎을 하나 떼어냈다. 떼어낸 잎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정신을 맑게 해주는 청명한 향을 맡고서는 한 손으로 덤불을 어루만지며 감사의 말을 읊조렸다. 그러자 줄기에서 세 개의 잎이 돌아났다. 덤불의 희생을 세 배로 돌려준 것이었다.

코드레사도 잎을 떼어내 그 향을 들이켰다. 편안하고 청명한 기운이 내려앉으며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파수꾼들은 아제로스 전역에 파견되었고, 그런 삶을 좋아했지만, 코드레사는 다르나서스를 거의 떠나지 않았고 이곳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다. 절대 임무에 태만하지도 전투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여러 해 동안 동족을 떠나 임무를 수행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코드레사의 집은 이곳, 티란데와 말퓨리온이 머무는 다르나서스였다. 멀리 떠나 있을 때면 신전과 정원의 평온을 그리워했다.

코드레사는 마법초 꽃봉오리를 하나 떼어내 분홍빛 꽃잎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티란데 님과 스톨윈드에 모인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실리더스에 호드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사울팽이 자신의 대족장에게 그렇게 강권하는 이유를 설명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이라고는 엄청난 수의 고블린 뿐이었습니다. 아제라이트 채굴에 혈안이 되어 침입자는 모두 죽이려 날뛰는 고블린뿐이었죠.”

“고블린의 수가 갑자기 불어나지는 않더냐?”

“보지 못했습니다. 놈들이 공격하기는 했지만, 비겁한 방식이었죠. 무장이 좋아지거나 수가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호드가 군대를 파견했다는 신호가 될만한 건 없었습니다. 물론, 티란데 님과 안두인 폐하가 생각하시듯 호드가 아제라이트를 무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면, 이런 움직임도 설명이 됩니다.”

말퓨리온이 평온초 화단 앞에 멈춰 하얀 꽃을 응시하며 말했다. “실리더스로 병사를 파견하라는 티란데의 명령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네. 실리더스에 보낼 군대를 확보하려면 파수꾼 다수와 더불어 지역 수비대에서도 전투가 가능한 적당한 인원을 차출해야겠군.”

“알겠습니다, 산도.”

말퓨리온이 슬퍼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대도 차출이야, 브라이어보우. 미안하지만, 다시 실리더스로 가 줘야겠어. 부대를 선도하려면 현지에 익숙한 사람이 필요하다.”

‘벌써 떠나야 하는군.’ “물론입니다. 언제 떠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배로 떠나길 바란다.”

코드레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파수꾼 서머문은 저와 여러 번 함께 참전했던 용사입니다. 이번에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군요. 그녀도 차출되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맞다. 하지만, 실리더스는 아니야.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잿빛 골짜기 전초기지에 병력이 부족해지겠지. 파수꾼 서머문과 다른 이들에게 그 빈 자리를 부탁할 생각이다.”

‘겨우 인사밖에 못 했는데.’ 코드레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아쉬운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이 파수꾼의 삶이었다. “탐험가 연맹에서 파견된 이들과 작별을 나눌 시간이 있을까요?”

“물론. 너무 지체하지만 말도록.”

기대 이상의 수확에 코드레사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산도.”

말퓨리온이 두루마리가 든 가방을 건넸다. “드워프 친구들에게 아이언포지로 가기 전에 스톨윈드에 들 수 있는지 물어 보거라. 이 편지를 티란데와 안두인에게 전해줬으면 좋겠군. 고맙다, 파수꾼이여. 엘론의 축복이 함께하길.”

‘축복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코드레사는 생각했다. ‘호드와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말이죠.’



신전 근처 녹음이 우거진 한적한 지역을 두 명의 파수꾼이 말없이 걷고 있었다. 다르나서스에서 유일하게 비전 마법을 다루는 명가 엘프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차원문은 귀중한 선물이었고 최근 칼도레이의 고위층에서 조심스럽게 차원문 사용을 허가한 덕분에 이미 많은 고초를 겪은 탐험가 연맹 탐험대의 생존자들과 같은 소규모 여행자들이 긴 항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중요한 정보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는 전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코드레사가 함께 걷고 있는 텔라린에게 말했다.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우리 지도자께서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텔라린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우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야죠.”

드워프들은 웃고 떠들며 기다리고 있었다. 타렐비르와 더하나, 팰리르, 세 명의 신비술사가 너그러운 미소로 지켜보는 가운데 탐험가 연맹의 일원인 수석고고학자 그레이위스커가 열렬히 모험담을 풀어놓고 있었다. 코드레사는 평온한 드워프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 기뻐다.

“가빈 스타우트암, 인지 아이언피스트, 아르위스 블랙스톤, 여러분의 동료를 지키지 못한 것은 평생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가빈이 다정한 눈으로 코드레사를 바라봤다. “아가씨, 저 밖은 위험한 곳입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탐험가 연맹에 가입한 이라면 누구나 알죠. 우리가 위험을 두려워했다면, 안전한 집에 틀어박혀 벽난로 불이나 찢며 맥주잔이나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먼저 떠난 이들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고 말이지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도 저 황량한 사막 모래 아래 잠들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모셔다드리고 제 눈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시를 보고 싶지만, 최대한 빨리 실리더스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호드의 손에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빈이 놀라며 물었다. “실리더스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돌아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고블린 놈들에게 얼라이언스의 힘을 보여줘야지요.” 텔라린이 이렇게 말하자 가빈이 웃었다.

코드레사가 말했다. “괜찮으시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코드레사는 말퓨리온이 맡긴 두루마리 가방을 드워프 대장에게 건넸다. “저희 산도께서 아이언포지로 가는 길에 스톰윈드에 들러 이 편지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티란데 님과 안두인 국왕께 전해주세요. 아마 그분들이 세 망치단 의회에 전할 말도 있을 것입니다.”

가빈이 조심스레 두루마리 가방을 받았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영광이요.” 가빈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코드레사를 바라보다 헛기침을 했다. “그럼,” 가빈이 손을 뻗어 어색하게 코드레사의 팔을 토닥였다.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용감한 아가씨. 그리고, 망할 고블린 놈들에게 가빈 스타우트암의 똥까지 엮어 크게 한 방 먹여 주십시오.”

코드레사가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크나큰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코드레사가 몸을 바로 세우고 어깨에 주먹을 대며 경례했다.

호리호리한 마법사 더하나가 능숙한 솜씨로 허공에 손을 휘젓자 빛나는 원이 나타났다. 원 안에는 스톰윈드의 모습이 일렁이고 있었다.

“엘룬의 빛이 인도하시길.” 코드레사가 인사했다.

“당신의 맥주잔이 언제나 넘치기를.” 가빈이 화답했다.

코드레사의 입에서 짧고 경쾌한 웃음이 터져 나오자 가빈이 윈크했다. 한 명 한 명, 드워프들이 차원문으로 사라졌다.

“감사합니다.” 코드레사는 마법사에게 인사한 뒤 모자를 벗어 인사하는 고고학자 그레이위스커에게 미소 지은 뒤, 텔라린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위대한 도시를 향해 굽은 하얀 돌을 향해 나아갔다.

“언제 떠날 건가요?” 텔라린이 물었다.

코드레사는 슬피 웃었다. “몇 시간 뒤에는 헤어져야 해요. 항구에서 페탈라스까지 함께 여행할 선원들과 만나야 해요. 당신은 어둠해안을 거쳐 잿빛 골짜기까지 갈 동료들을 만나야 하고요.”

젊은 나이트 엘프의 얼굴에 슬픔이 내렸다. “그렇군요. 고위 파수꾼은 실리더스로 파견되니 나머지 파수꾼이 그 빈 자리를 메워야겠네요.”

“그렇죠.”

텔라린이 한숨을 쉬었다. “코드레사, 당신이 부러워요.”

“부러울 것 없어요. 실리더스는 즐거운 곳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잖아요. 잿빛 골짜기는 유배지나 다름없어요.”

코드레사가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잿빛 골짜기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따분하죠.”

“그리고, 아나리스 윈드우드도 사령관으로 있는 곳이지요. 최고의 파수꾼에게 배울 기회예요.”

그 이름을 듣자 텔라린이 반색했다. 아나리스 윈드우드는 수많은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진정한 전쟁 영웅이었다. 최근 대격변 때는 잿빛 골짜기의 주요 기지 실바람 산장과 아스트라나르에서 이름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줬다. 실바람 산장에는 나뭇잎 호화로운 여관이 있어 한때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대격변으로 자연의 질서가 급변하고 오크가 밀어닥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오크는 실바람 산장의 파수꾼과 민간인을 모두 학살했다. 코드레사가 그 참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전하는 바로는 오크가 달아나는 사람까지 쫓아가 죽이고서 실바람 산장을 탈환하려는 자들에게 경고하려고 그 시체를 길바닥에 썩어가도록 버려줬다고 했다.

호드의 만행은 아나리스가 소규모 파수꾼 부대를 이끌고 실바람 산장을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현재 실바람 산장은 잿빛 골짜기 파수꾼들의 본부였다.

텔라린이 경외감 어린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아나리스 윈드우드라니.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도, 코드레스가 없는 동안 열심히 수련하겠어요. 어쨌면, 대드루이드와 대사제께서 페탈라스를 떠나는 마지막 전함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주실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아직 함께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코드레스는 친구의 열정에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지만, 기쁨은 금세 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신이 곧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요. 실리더스가 새로운 전쟁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텔라린도 코드레스처럼 급격히 어두워진 얼굴로 말했다. “오랜 반목이 새롭게 불거진다는 얘기로군요. 조심하세요.”

둘은 서로 포옹했다. 잠시 후 코드레스가 포옹을 풀고 말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항구까지 먼 길을 가야 하거든요. 끔찍한 사막으로 돌아가기 전에 푸르른 숲과 물소리, 그 고요함을 기억해두고 싶어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코드레스는 뒤돌아서서 상인의 정원 쪽으로 걸어갔다. 히포그리프 조련사에게 바로 가기보다 조금 더 다르나서스를 담아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텔라린은 코드레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파수꾼이었다. 역사가 비교적 짧은 종족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전쟁과 전투로 단련된 용사였다. 엘라이언스와 호드 사람 중 일부는 칼도레이가 기나긴 삶을 살기에 죽음에 초연하리라 생각했다. 단순히 칼도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쁨과 웃음, 사랑, 의식, 경이로움이 ‘가득한’ 삶을 사는 존재인 것처럼.

물론,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다. 그래서 모든 전투, 활시위를 놓는 매 순간이 더욱 중요했다. 결국, 엘프도 죽음의 확률 게임에서 예외는 아니었으니까. 전투를 치를 때마다, 활시위를 놓을 때마다, 피할 수 없는 결말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 병사의 삶이었다.

그러나, 병사의 삶에도 기쁨은 있었다. 전우애, 우정, 사랑, 영원히 함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몇 년 또는 수십 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향점이 되어줄 존경스러운 영웅들이 있었다.

텔라린 서머문은 곧 그들 중 하나를 만날 것이다.

‘말퓨리온, 내 사랑.’

당신과 사랑하는 우리 도시의 냄새와 풍경, 그 소리가 그림지만, 저는 스톤윈드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았지만, 얼라이언스의 모든 세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았죠. 아제라이트는 너무 귀중하고 우리 세계도 너무나 소중해요. 세상을 지킬 일말의 기회라도 있다면 망설일 수 없습니다. 실바나스와 그녀의 포세이돈이 불러올 공포는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고블린은 무슨 가공할 무기를 만들고 있을까요? 오크와 트롤은 무엇을 개발했을까요? 파수꾼을 실은 마지막 전함이 페달라스를 출발했다니 다행입니다. 필요할 때 저희 군대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전임 왕이었던 바리안을 진심으로 존경했지만, 고백하건대 젊은 안두인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를 보면 기쁘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나이가 많기란 쉽지 않잖아요? 안두인 왕은 똑똑할 뿐 아니라 현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간과 드레나이, 드워프 그리고 우리까지, 모두 지도자가 사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지금도 안두인은 평화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더군요. 순수함을 잃는 것은 언제나 씁쓸하지만, 사람들을 이끌려면 보고 싶지 않다고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를 가르칠 수 있어서, 그리고 그가 제 말에 귀 기울이니 기뻐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당신의 사랑 티란데가.’

‘존경하는 영웅은 실제로 만나지 않는 편이 좋아.’가지를 길게 드리운 잿빛 골짜기의 나무 아래를 지나며 텔라린은 생각했다.

어제 새된 목소리의 파수꾼 반나라가 조용하게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아나리스는 샐드리스 페더문만큼이나 활을 잘 쏘지만, 통솔력은 사티로스만큼이나 형편없다’고요.”

“그 정도면 호평이네요.” 텔라린은 그렇게 대꾸했었다. 잿빛 골짜기 사령관은 분명 명예로운 자리지만, 텔라린은 왜 아나리스 윈드우드가 다른 지역의 전장에는 한 번도 파견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부서진 해변의 군단과의 전투에도, 호드 영토로도 파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도, 실리더스로 파견되지 않았다. 왜일까?

이제 알 것 같았다.

윈드우드의 모습은 확실히 사령관다웠다.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파수꾼보다 키도 크고 강인해 보였다. 보라색 머리카락과 담청색 피부도 멋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얼굴이었다.

나이트 엘프 여성은 중요한 업적을 달성하면 보통 얼굴에 문신을 새겼다. 양식화된 발톱 문양이 통상적이었지만, 아나리스 윈드우드는 상처 모양을 흉내 낼 필요가 없었다. 트롤의 랩터가 할퀴 진짜 흉터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다. 깊은 상처가 이마 바로 아래부터 뺨까지 이어져 있었다. 엘룬의 은총으로 눈을 잃지는 않았다. 아나리스는 그 흉터를 없애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영혼의 표식’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아나리스는 부족한 육체적 아름다움을 공포함과,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로 대신했다고 텔라린은 생각했다.

텔라린은 랩터가 아나리스 윈드우드의 어깨에서 머리를 떼어내려다 실패하고 남긴 그 흉터를 뚫히 바라보는 실수를 범했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보니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휘둥그레 뜨며 조그맣게 동정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던 것이다. 사령관의 시선이 빠르게 얼굴과 얼굴을 훑는 모습을 보건대 자신만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아나리스의 갈라진 입술이 말려 비웃는 듯이 올라갔다. “다르나서스에서 온 신참이로군, 그렇지?”

무뚝뚝한 인사말에 놀라 텔라린과 다른 이들은 어쩔 줄 모르고 서로 흘깃거렸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다들 다른 곳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텔라린이 입을 열었다.

아나리스가 짜증스럽다는 몸짓으로 말을 끊었다. “대드루이드께서 널 골라 보냈으니 싸울 줄은 알겠군. 전투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누구도 파수꾼이 될 수 없다.” 다르나서스의 파수꾼을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에만 머물던 애송이라고 무시하는 어조였다. “텔라린 서머문 부관. 자네가 내 부사령관인 모양이군.”

“저는 예전에...”

“이제 내가 네 상관이라는 사실만 알면 됐다. 너는 내 명령에 복종하고 네 수하는 내게 복종하고 또 그 수하로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된다.” 아나리스가 모두를 바라봤다. “이곳은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 것이다. 다르나서스의 명령으로 잣빛 골짜기에 배정된 파수꾼이 반으로 줄었다. 극단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탓에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이 대담해질 것이다. 도둑, 살인마 등, 기회만 있으면 민간인을 공격하고 여행자들을 안전한 길에서 끌어내는 자들이 만연하겠지. 놈들을 막고 시민과 여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나는 너희가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 처지지.”

텔라린은 평화로운 신전을 떠올리며 불편한 상황을 이겨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후로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굴욕적인 시험과 훈련과 다그침이 계속됐다. 칼도레이의 영혼과 심장을 보호하던 다르나서스 파수꾼들이 새파란 신병처럼 기량을 시험받아야 했다.

어이가 없었다. 그들은 하찮은 서신만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받은 이들도 그렇게 말했다. 심지어 지켜주려 간 시민들조차 새로 온 파수꾼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파수꾼은 병사였다. 병사는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될 테니까. 텔라린은 첫 훈련이 그리웠다. 첫 출전, 코드레사와 산드리스, 티란데가 그리웠다. 그렇게 입술을 깨물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다.

텔라린은 별가루 침탑에서 실바람 산장으로 귀환 중이었다. 폭우가 쏟아져 발을 디딜 때마다 장화가 철벅거렸고 암청색 머리카락은 머리에 찰싹 달라붙었고 몸은 떨려왔다. 뜨거운 차 한 잔이 절실했다. 텔라린이 비에 젖지 않도록 품에 꼭 갈무리한 서신의 내용은 평범하다 못해 하찮았다.

뒤쪽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씹씹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텔라린은 얼어붙었다.

나이트 엘프는 보통 동물들과 가깝게 지냈으며 야생 동물의 친척과도 같았다. 그래서 텔라린은 뒤돌아서 부드럽고 정중하게 말했다. “곰 형제여,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페린?”

철푸덕 주저앉은 곰이 내는 낮설고 우는 듯한 소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웃음소리였다. 곰이 모습을 바꾸자 곧 이끼빛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키 큰 담청색 나이트 엘프가 나타났다. 그 역시 훌쩍 젖어 있었다.

“아아, 텔라린.” 페린이 따뜻하고 풍부한 목소리로 흔들리는 텔라린의 밝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매번 속을 수 있지?”

텔라린이 성가신 듯 한숨을 쉬었다. “다음에는, 일단 쏘고 볼 거야.”

페린이 무서운 척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절차를 무시한다고? 그럴 리가.”

텔라린은 뒤로 돌아 실바람 산장으로 계속 나아갔다. 페린이 그녀 옆에 가벼운 걸음으로 따라붙었다. 침묵이 흘렀다. 말도 없었고, 진흙과 풀 때문에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다. ‘몇 년만에 보는 데도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다니.’

하지만, 둘은 언제나 그랬다.

텔라린의 손에 마치 그녀가 거부하면 바로 움츠릴 듯 슬며시 다가오는 페린의 손끝이 느껴졌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의 손을 거부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서로의 임무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 서로의 본성이 둘을 갈라놓았지만, 엘룬계서는 언제나 둘을 다시 이어줬다.

그렇게 텔라린은 장갑 낀 손을 페린에게 맡긴 채 걸어갔다.

“여긴 어쩐 일이야?” 텔라린이 물었다.

“당신이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야?” 페린이 되물었다.

“재배치됐어.” 텔라린은 페린이 얼마나 아는지,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만 대답했다.

“나도. 악령숲에서 이쪽으로 호출받았어. 상당수의 형제자매가 남쪽으로 갔거든.” 페린이 텔라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모래땅으로 말이야.”

텔라린은 긴장을 풀었다. 페린도 알고 있었구나. 텔라린이 말했다. “아, 난 모래가 싫어.”

“나도 그래. 갈기와 털 사이에 끼거든.”

“그리고 갑옷에도.”

“실망했어?”

엘룬이여. 페린은 텔라린을 너무 잘 알았다. “코드레사가 갔어. 나는 불행히도 여기에 묶였지.”

“나도 처음에는 이번 배치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보니 걱정과는 달리... 전혀 불평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네.”

페린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잿빛 골짜기를 혼란스럽게 만들던 지옥 마력을 퇴치하려 싸우던 때가 언제였던가? 10년 전? 12년 전? 적어도 10년 전이었다. 백 번, 아니 천 번째 작별 키스를 한 뒤로 10년은 지났다.

텔라린은 이곳에 온 뒤 처음으로 마음이 포근해졌다. 페린이 맞았다. 생각했던 것처럼 불행한 임무는 아니었다.



며칠 후, 텔라린과 페린은 자신들이 찾아낸 아늑하고 외딴곳에서 나뭇잎 사이로 스미는 노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서로 껴안고 누워 있었다.

위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페린이 순식간에 밤호랑이로 모습을 바꾸고 예민해진 후각으로 눈까지 매운 고블린의 악취를 맡더니 위쪽으로 뛰어올랐다.

이 녹색 쥐새끼는 셔츠도 없이 조막만 한 갑옷만 입고 있었는데, 분명 무성한 나뭇잎이 자신의 녹색 몸을 가려주리라 믿었을 터였다. 용감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페린은 앞발을 가볍게 휘둘러 암살자의 두 손에 든 칼을 날려버리고서 길고 날카로운 앞니로 살인 용의자의 목을 찢어놓았다.

동시에 고블린의 머리에 텔라린의 화살도 날아와 박혔다. 페린은 누구의 공격이 먼저였을까 궁금해하며 땅으로 뛰어 내려와 이미 실바람 산장으로 달리고 있는 텔라린을 쫓아갔다. 페린은 귀를 쫑긋 세워 확인 사살까지 당한 고블린이 땅에 떨어지며 내는 둔탁한 충돌음을 들었다. 달리면서 텔라린을 흘깃 쳐다봤고 일순간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페린의 심장을 옥죄는 공포가 텔라린의 얼굴에도 드러나 있었다.

불안을 달래며 절반쯤 왔을 때 은빛 뿔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무 늦었던 것이다. 산장이 공격받고 있었다.

둘은 엉망이 된 잔디밭에 널브러져 있는 거대한 밤호랑이의 시체를 뛰어넘었다. 칼도레이를 헌신적으로 섬기던 아름다운 생물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다니. 산장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시체가 보였다. 칼도레이와 호드의 시체가...

텔라린이 숨을 급히 들이마셨다. 그녀가 친구로 여기던 이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모습에 텔라린이 보인 유일한 반응이었다. 많은 나이트 엘프의 시체에서 눈에 띄는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살인자들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쥐어져 있었고, 일부 독으로 검게 변색된 칼이 끔찍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페린이 처치한 고블린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텔라린과 페린은 함께 산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바닥에 더 많은 시체가 누워 있었다. 그중에는 아직 경련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런 이들에게 치유사가 미친 듯이 달려가 치유하고 있었다. 난간에 짙은 남빛의 폭풍까마귀가 앉아 있었다.

반나라가 다가오자 텔라린은 불안으로 몸이 굳었다. 그녀의 얼굴이 암울했기 때문이다.

반나라는 고갯짓으로 폭풍까마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드루이드가 레인나무 은신처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쪽도 공격당했다고 합니다. 별가루 침탐도요. 호드 암살자들이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했지만,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용하고요. 나타난 놈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졌습니다.” 반나라는 망설였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반나라 만큼이나 괴롭고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텔라린이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군요. 사령관님은 어디 계시죠?”

“파수꾼 십여 명과 훈련 순찰을 나가셨습니다.”

“그게 언제죠?”

“자정입니다.”

둘의 시선이 얹혔다. 혐오감이 치밀었다. 일반적인 순찰은 보통 넷이나 다섯이서 나갔다. 아나리스 윈드우드가 다르나서스에서 온 파수꾼들을 모욕하는 일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만 앉았어도 산장에 병력이 부족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으리라. 텔라린은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른 욕을 억지로 삼켰다. 그런다고 죽은 이들이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 “어디로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밤호랑이의 머리가 텔라린의 팔을 부드럽게 밀었다. 잇을 뻗었다. 페린은 아나리스를 추적할 수 있다.

텔라린이 눈짓으로 페린에게 감사를 표했다. “후속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도록 하십시오. 페린과 저는 사령관님을 찾아보겠습니다.”

텔라린은 사령관의 숙소로 가서 리넨 셔츠를 하나 가져왔다. 페린이 냄새를 맡은 다음 몸을 낮추고 등을 내밀며 텔라린을 올려다봤다. 순간, 텔라린은 망설였다. 드루이드는 동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짐승처럼 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페린도 알고 텔라린도 알듯, 도적들은 생존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호랑이들을 죽여버렸고 지금은 한가하게 걸어 다닐 시간이 없었다.

“고마워.” 텔라린은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짙은 남빛의 밤호랑이 위에 올라탔다. 텔라린은 귀를 붙이고 아나리스 윈드우드 사령관의 냄새를 따라 바람처럼 달리는 페린의 등 뒤에 바싹 매달렸다.

캠프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나리스 일행을 찾아냈다. 텔라린은 경악했다. 심지어 그들은 순찰 중도 아니었다. 아나리스는 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맞춰 행군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파수꾼은 신체 능력이 최고조에 이른 뛰어난 병사지만, 척 보기에든 이들은 상당히 지친 데다 쉬지도 못한

것으로 보였다. ‘자신이 지키기로 맹세한 이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도 최고의 전사들을 데려가 고작 이런 훈련이나 하다니.’

“사령관님!” 텔라린이 소리쳤다. “사령관님! 산장이 공격당했습니다!”

아나리스가 책 돌아섰다. 흥터 난 얼굴이 분노로 더욱 일그러져 있었다. 아나리스가 페린을 흘깃 쳐다본 뒤 말했다. “설명해.”

파수꾼들이 발을 멈추고 텔라린의 말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동료가 진짜 위험에 처했다는 말에 피로가 싹 달아난 모습이었다.

“여러 명의 호드 도적이 침투했습니다. 놈들은 습격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호랑이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반나라의 말에 따르면 잿빛 골짜기에 있는 다른 기지에서 같은 일을 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잠시, 아나리스가 텔라린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파수꾼들에게 몸을 돌렸다. “뭘 멍청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나? 너, 은빛날개 숲으로 달려가라! 만약...”

페린이 분노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너무 늦었다. 페린이 팽팽하게 긴장한 것을 느끼고 텔라린은 그의 등 뒤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포세이큰은 이미 머리 위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놈은 아나리스 바로 뒤에 착지하는 동시에 쌍검으로 그녀의 등을 찔렀다. 걸어 다니는 시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암살자는 움직임이 빨랐다. 놈의 단검 중 하나가 빠르고 정확하게 마우라의 목을 가르자 머리가 몸에서 거의 떨어져 나갔다.

텔라린이 너무나 느린 자신의 손을 저주하며 활을 재고 시위를 놓는 동안 페린이 분노의 포효와 함께 포세이큰에게 달려들었다. 그림자가 일렁이더니 다른 도적이 나타났다. 블러드 엘프였다. 놈은 긴 금발을 망토처럼 휘날리며 검을 휘둘렀다. 숨 한 번 들이킬 정도밖에 안 되는 순간에 나이트 엘프 중 절반이 피를 흘리며 녹색 숲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고 있었다.

마침내, 파수꾼들도 정신을 차렸다. 블러드 엘프가 다시 사라졌지만, 상관없었다. 놈이 겁쟁이처럼 도망칠 때 잡으면 된다. 파수꾼들이 나무 사이로 화살을 비처럼 날렸지만,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신도레이는 빠져나간 것이다.

포세이큰은 그렇지 못했다. 에리아드나르가 달려들어 칼을 휘둘러 놈의 몸통에 고랑을 내고 한쪽 팔을 잘라냈고 페린이 놈을 쓰러뜨려 꼼짝 못 하게 눌러 놓았다. 페린은 놈의 목을 찢어발기지 않기 위해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다.

바닥에 쓰러진 아나리스 윈드우드의 눈은 아직 열려 있었지만, 생명의 빛은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었다. “사령관님?” 에리아드나르가 사령관을 불렀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텔라린이 차갑게 대답했다. 윈드우드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지금은 분노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다.

“텔라린, 이제 당신이 사령관입니다.” 에리아드나르가 조용하게 말했다.

그랬다. 사령관이라니, 이상한 느낌이었다. 텔라린은 마음을 다잡으며 포로에게 다가갔다. 놈이 떨어뜨린, 아나리스의 피에 젖은 단검이 보였다. 단검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린 다음 페린에게 고갯짓을 했다. 페린이 포세이큰을 위협하듯 으르렁거리며 물러났다.

놈을 내려다보며 고통과 분노를 담아 내뱉었다. “살고 싶다면 말하라, 포세이큰.”

놈은 자신의 종족답게 소름 끼치고 공허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살려준다고? 난 살아 있던 때가 까마득하다고, 엘프.”

“말장난을 좋아하나 보지? 말장난 대신 숫자 놀이는 어떠냐.” 텔라린이 놈의 팔을 가리키며 말했다. “팔이 하나 없어졌군. 하나 더 없애줄 수도 있는데. 아니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 아직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쓸 만한 걸 말해라, 시체. 안 그러면 네 개로 만들어 주겠다.”

대답이 없자 텔라린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놈의 손목을 잡고 칼을 들어 올렸다.

놈이 성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하겠다!”

‘역시 칼에 독을 발랐군.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고통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무슨 명령을 받았나?”

살아있는 시체의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누런 이빨이 드러났다. 놈이 웃자 텔라린의 얼굴에 썩은 냄새가 훅 끼쳐왔다. 토할 것 같았지만, 꼭 참고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놈이 말했다. “뻔한 질문을 하는군. 똑똑한 놈들은 벌써 다 죽었나? 아, 잠깐. 나이트 엘프는 다 멍청하지. 트롤 하나가 다른 사령관의 귀를 잘랐어. 녀석은 지금 그걸 목에 걸고 다니지.”

있을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텔라린은 미끼를 물지 않았다. “이걸 네놈 목에 쑤서 넣으면 발키르가 와도 널 살릴 수 없어.”

텔라린이 칼날을 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무슨 독을 발랐지? 뭐, 고통스러운 독이겠지. 포세이큰답게 말이야. 어서 쓸만한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네놈이 헛소리나 중얼거리며 시간을 번다고 판단할 거야.” 텔라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떤 포로가 시간을 벌려고 하지 않겠나? 존재는 소중하다. 우리도 그건 안다고.”

사실이였다. 나이트 엘프는 진심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포로를 고문하지도 재미로 불필요하게 생명을 해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포세이큰과 같이 자연법칙에 반하는 존재에게는 예외였다.

내면의 무엇인가가 돌처럼 단단해졌다. 텔라린은 칼날을 암살자의 검지에 가져갔다. “날. 시험하지. 마라.”

텔라린의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놈의 썩어 문드러진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너희는 희망이 없어. 너희는 포위됐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기지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나? 나 같은 전사들이 강력한 독을 품고 너희 기지에 침투했다. 잘난 사냥꾼들, 걸멋만 든 파수꾼들, 겁쟁이 드루이드들은 짐작도 못 했지.”

텔라린은 실바람 산장으로 날아와 소식을 전한 드루이드가 생각났다. 그렇다, 일부 전초기지에서도 기습 공격을 보고했다. 하지만, 포세이큰 암살자의 말에는 강렬한 무엇이 있었다.

텔라린이 날카롭게 말했다. “허풍 그만 떨어. 네놈들 계획이 뭐지? 호드는 실리더스로 진군하고 있다. 왜 잿빛 골짜기로 방향을 바꾸...”

묻던 중에 답이 떠올랐다. 이렇게 뻔한 일을 눈치채지 못하다니. 배에 칼이 꽂힌 기분이었다.

나이트 엘프 함대는 페탈라스로 이동하는 중이었고,

티란데는 스톰윈드에 머물고 있었다.

“공격로를 닦는 거였나.” 텔라린은 공포에 싸여 중얼거렸다.

포세이큰이 말없이 웃었다. 텔라린이 단검을 들어 올렸으나, 암살자의 웃음이 어느새 쿨룩거리는 기침소리로 변하더니 끈적한 액체를 토해내고는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놈이 그녀를 속였다. 텔라린이 죽이기 전에 상처가 놈의 거짓 생명을 거둬간 것이다.

텔라린은 포세이큰의 조롱이나 그놈을 심문하느라 낭비한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이미 많은 시간을 잃었다.

텔라린이 튕겨나듯 일어났다. “에리아드나르, 다쳤습니까?”

“아닙니다, 사령관님.”

“그럼 달리십시오, 자매여. 젖먹는 힘까지 다해 다르나서스로 가십시오. 싸우지도 멈추지도 말고, 필요하다면 숨어서라도 이 소식을 다르나서스에 전하십시오. 말퓨리온 님께 적군이 몰려온다고 전해야 합니다.”

페린이 다시 칼도레이의 모습을 취하며 말했다. “그녀가 달리는 것보다 내가 날아가는 게 빨라.”

텔라린은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에게는 다른 임무가 있어. 가십시오, 에리아드나르. 엘룬계서 그대의 길을 인도하기를.”

파수꾼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쏜살처럼 달려나갔다.

텔라린이 페린을 향해 말했다. “불모의 땅으로 가. 호드가 오고 있어. 놈들이 언제쯤 도착할지 알아야 해. 놈들이 보일 때까지 계속 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교전은 피해. 살아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 줘.”

페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필요 없었다. 둘 다 셀 수 없이 많은 전투를 겪었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따로. 이제, 다시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둘은 동시에 서로에게 다가가 깊게 입맞추고 임무로 돌아갔다.

페린은 알지 못했지만, 둘이 헤어질 때마다 델라린은 엘룬께 그의 안전을 빌었다. 델라린은 이번에도 기도했다. 다시 지켜달라고. 그리고 처음으로 희미한 불안감이 들었다. 이번 전투에서는 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달의 여신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페린은 전투를 좋아했다. 실력도 뛰어났다. 하지만, 델라린은 분명하게 말했다.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격할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기는 해도, 전투가 자신을 찾아온다면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페린은 자신이 좋아하는 밤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바람처럼 달렸다. 실바람 산장 남쪽을 향해 높이 자란 나무의 가지와 가지 사이를 뛰어넘었다. 별빛노래 숲에 들어서서 참상을 목격한 페린은 역겨움과 분노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은빛날개 숲과 은빛날개 전초기지 모두 조용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피 냄새가 짙어졌다. 페린은 터져 나오려는 포효를 억눌렀다.

과거에는 오크의 전초기지였지만, 괴물 같은 가로쉬 헬스크림이 사망한 뒤 탈환한 몰산의 망루도 무너졌다. 적에게 망루를 빼앗겼으리라고는 예상했지만, 칼도레이의 피 냄새에 섞여 나는 오크와 고블린의 악취는 예상하지 못했다. 페린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모습을 숨기고 나아갔다. 오크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걸걸한 노랫소리로 이어졌다. 페린은 낮은 가지로 내려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오크와 고블린이 시체를 뒤져 무기와 장신구 따위를 모으고 있었다. 고블린이 사냥꾼의 손에서 반지를 빼려고 꺾꺾대고 있었다. 손을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 시체가 들썩거렸다.

적은 둘 뿐이다. 간단히 해치울 수 있다. 페린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그에 굴복하지는 않았다. 정찰해야 한다.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그게 명령이었다. 이제 델라린이 잿빛 골짜기의 사령관이며 자신은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너희 둘, 내가 델라린을 지극히 위한다는 것에 감사해라.’ 페린은 불만을 속으로 삭이며 백 번은 죽여도 시원찮을 두 놈을 지나 기지로 잠입했다.

페린은 나이트 엘프의 모습일 때조차 호드보다 후각이 예민했다. 밤호랑이 모습일 때는 훨씬 예민했다. 그렇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놈들도 페린의 냄새를 맡을 것이다. 페린은 요새로 접근하기 전에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다.

바람의 방향이 확인되자 폭풍까마귀로 모습을 바꾼 뒤, 커다란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지금은 정오였다. 호드는 나이트 엘프가 언제 가장 취약한지 알고 그때를 골라 기습했다.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쬰며 불모의 땅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적황색 황무지를 더 황량하게 보이게 했다. 그 빛 아래 드러난 모습이 페린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너무나. 많았다. 수천, 아니 수만, 셀 수 없이 많은 병사가 황무지 위를 물들이고 있었다. 불모의 땅에 몇 개 없는 오아시스 주변에 짐마차를 끄는 코도가 모여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며 잣빛 골짜기로 진군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공성 전차 수십 대가 땅을 뒤덮고 있었다.

그들은 칼도레이 드루이드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였다. 페린은 정보를 더 모아야 할지 갈등했다. 목숨은 아깝지 않았다. 다만, 호드가 하늘에 떠 있는 폭풍까마귀가 드루이드라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적은 이미 암살자를 보내 나이트 엘프 기지를 습격했다. 칼도레이가 침공을 눈치챘으니 더 이상 의도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페린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찰이 가능한 최대 높이까지 날아올랐다. 제대로 된 호드 군대였다. 오크만이 아니었다. 오크가 많기는 했지만, 모든 호드 종족이 망라되어 있었다.

얼라이언스 첩자의 보고로는 사울팽이 직접 군대를 이끈다고 했다. 대족장도 여기 있을까? 사울팽이 아니라 윈드러너가 이 군대를 이끌고 있을까?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했다. 윈드러너라면 당연히 여기에 있겠지. 오만한 그녀가 다른 이에게 승리의 영광을 양보할 리 없었다. 게다가,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호드 최강의 전사였다.

‘교활하고 비겁한 뱀시같으니. 티란데님과 말퓨리온님이 계셨다면 공격할 엄두도 못 냈을 비겁자 주제에. 하지만 티란데 님은 오실 것이다. 그녀와 산도가 대가를 치르게 만드실 테지.’

실바나스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기다란 흰 머리를 땀아 늘어뜨린 거대한 오크가 마차에서 내리는 모습은 확인했다. 다른 오크보다 고급 갑옷을 입고 있었고 부대 사이를 지나가면 오크들이 경의를 표했다. 늑었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권위가 배어 있었다. 세월도 저 오크의 힘을 좀먹지는 못한 것 같았다.

오랫동안 페린은 흔들림 없는 날개로 공중에 머물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타오르는 분노가 슬픔을 잠식하자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페린은 북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최대한 빠르게 날개를 움직였다.



말퓨리온은 파수꾼이 도착했다는 전갈을 받자마자 달샘으로 달려갔다. 이미 세 명의 여사제가 파수꾼에게 다가가 음식을 건네며 돌보고 있었고 파수꾼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파수꾼 에리아드나르.” 말퓨리온이 다가가며 말했다.

샘 가장자리에 앉은 파수꾼의 초췌한 모습으로 고된 여정의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말퓨리온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무렇지 않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고생했으니 그대로 앉거라, 파수꾼. 무슨 소식이길래 이렇게 서둘렀느냐?”

일어나려던 파수꾼이 다시 앉으며 말했다. “저는 실바람 산장에서 왔습니다. 호드가 저희 전초기지 대부분을 일제히 습격했습니다. 아나리스 윈드우드 사령관은 사망했고 델라린 서머문이 사령관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내 적이...” 파수꾼은 잠시 목이 메이는 듯 머뭇거리다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적군이 몰려온다 전하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말퓨리온은 이런 비보를 들을 날이 있으리라 예상했다. 호드가 일어나 광기로 얼룩진 눈이 다르나서스로 향하게 될 날을, 결국 그날이 왔다.

말퓨리온과 티란데는 계략에 당했다. 정확하게 호드의 의도대로 나이트 엘프 함대를 실리더스로 파견한 것이다. 칼도레이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했다.

하지만, 호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나이트 엘프 영토에 대한 이 뻔뻔한 공격으로 깨어난 존재들이 있었다. 호드가 잿빛 골짜기 주둔군만 상대하면 되리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었다. 호드는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와 그가 훈련한 드루이드들의 정중하지만 위엄 있는 손에 의해 잿빛 골짜기 자체의 공격을 받게 되리라.

사울팽은 역전의 노장답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울팽과 그의 군대는 다른 군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군대가 보호하는 존재를 상대할 수는 없으리라.

결의에 찬 말퓨리온이 당당한 모습으로 대지를 딛고 섰다. 그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다가오는 전쟁에 준비가 되었다.

파수꾼은 말퓨리온 내면의 변화를 감지하고 남아 있던 일말의 불안감마저 털어냈다.

말퓨리온이 침착하게 말했다. “서둘러줘서 고맙군. 충분히 쉬고 나면 그대가 맡아줄 임무가 있다.”



다른 전초기지에서 끊임없이 보고가 들어왔다. 모두 공격당하지는 않았다. 무사한 전초기지에서는 텔라린의 경고를 받고 실바람 산장으로 지원군을 파견했다. 아스트라나르와 같이 병력을 잃었어도 도적들을 몰아낸 전초기지도 있었지만 불길하게 침묵하고 있는 기지도 있었다.

거의 즉시 지원이 도착했고 텔라린은 희망의 불씨를 키우려 노력했다. “우리 대부분이 살아남았습니다.” 텔라린은 이렇게 말하며 새로 도착한 병력을 향해 적이 기습의 이점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놈들이 우리 고향에 침입했습니다. 우리는 이 숲의 나무 하나 바위 하나까지 살살이 알고 있으며 이 땅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드에게는 둘 중 어떤 이점도 없죠. 우리는 방어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형의 이점이...”

텔라린과 부관이 모여 있는 실바람 산장 여관으로 폭풍까마귀가 날아들었다. 페린이 공중에서 모습을 바꾸며 가볍게 착지했다. 지쳤는지 가볍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텔라린과 다른 이들은 페린이 본 것, 페린이 본 인물... 그리고 거기 있으리라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보고에 완전히 말을 잃었다. 텔라린은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페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느껴졌다.

이제 부인할 길이 없었다. 대군주 바로크 사울팽이 이끄는 호드 군대가 다르나서스를 향해 행군 중이었다. 무엇보다 대족장도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른다. 호드는 다르나서스를 차지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병사와 물자, 장비를 동원했다.

“병력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 텔라린이 조용하게 물었다.

페린이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일곱 배에서 여덟 배.”

무거운 침묵이 장막처럼 드리웠다.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함대 없이는...’

아니야. 텔라린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몰아냈다.

창밖으로 미스트랄 호수가 눈에 들어왔다. 최근에 내린 비로 수위가 올라 호수 가운데 작은 섬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다.

“비야.” 텔라린이 돌연 내뱉었다. “호드는 코도를 타지. 대형 짐마차도 가져왔어. 끔찍하게 무거운 장비야. 길이 아직 진창이니 짐마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거야. 그리고 강이 범람하면 더 움직이기 힘들겠지.”

텔라린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우리가 다리를 태워버린다면, 더더욱.”

3장:
맹공

우리 앞에 달리던
선봉대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위습과 그림자의 영토로.
그러나 아직도 흐를 피가 남았다.
그들의 피, 우리의 피.
꿈의 나무와 별빛에 안겨 있는
빛나는 우리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안두인 린, 티란데 위스퍼윈드, 벨렌 그리고 겐 그레이메인은 사자의 안식처 공원에 서 있었다. 안두인은 언제나 아버지의 석상 앞에 서면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가끔, 낮과 밤의 숨결이 얹히는 황혼 녘에 이곳을 찾으면, 안두인은 아버지가 살아 있고 그저 멀리 있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티란데가 말했다. “평화로운 곳이군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티란데와 다른 얼라이언스 지도자들은 바리안이 사망한 직후, 그저 상징뿐인 바리안의 빈 관이 스톰윈드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 왔었다. 이 무덤도 비어 있었다. 땅에 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안두인은 어느 곳보다 이곳에서 아버지를 가깝게 느꼈다.

안두인이 말했다. “스톰윈드 시민들은 이해심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때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여기 너무도 아름다운 항구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스톰윈드 경비병 한 명이 달려왔다. 안두인이 경비병을 만나려 남은 계단을 조금 서둘러 내려갔다. 다른 이들도 안두인을 따라갔다.

“무슨 일입니까?”

경비병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왕을 향해서가 아니었다. “티란데 님, 공격이, 있었답니다. 대피가 시작, 되었습니다. 피난민이, 차원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티란데의 움직임이 멈췄다. 잠시 티란데는 달의 신전에 있는 하이드네보다 더 아름다운 석상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목에서 고동치는 정맥만이 그녀가 석상이 아님을 증명했다. 잠시 후, 티란데가 말했다. “저를 그들에게 데려가주십시오.”

네 명의 지도자가 마법사의 성소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수십 명의 피난민이 모여 있었다. 대마법사 말린이 계속해서 차원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대장장이, 재봉사, 제빵사... 피난민들은 일반 시민이었다. 파수꾼 한 명이 홀로 피난민과 섞여 있다가 티란데가 나타나자 앞으로 나서 무릎을 꿇고 두루마리를 건넸다.

안두인은 두루마리의 인장을 알아봤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의 인장이었다. 두루마리를 열어 내려가면서 티란데의 눈이 점점 커졌고 입매가 부들부들 떨렸다. 지도실에서 진행된 회의 성격이 암울하기는 했어도 안두인은 티란데가 여기 있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지금, 더 미묘하기는 했지만, 마치 겐 그레이메인이 늑대 형상으로 변할 때처럼 칼도레이의 지도자가 여사제에서 전사로 변화하고 있었다.

티란데가 고개를 들고 이야기했다.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였다. “호드가 잿빛 골짜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잿빛 골짜기요?” 안두인이 너무 놀라 되물었다.

“하지만, 실리더스는...” 겐이 말을 꺼냈지만,

곧 끔찍한 가정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고 모두 침묵에 빠졌다. 새로운 소식에 안두인은 뒤통수를 세계 얻어맞은 듯 충격에 빠졌다. 사울팽이 결집한 호드 대군의 목표는 처음부터 실리더스가 아니었다. 잿빛 골짜기에는 안두인의 첩자들이 보고한 규모의 대군을 막을 병력이 없었다.

그리고 잿빛 골짜기는 호드와 다르나세스 사이를 막고 선 최후의 장벽이었다.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졌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다시 한번 안두인과 다른 얼라이언스 지도자들을 멋지게 속였다. 이번에는 얼라이언스가 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겐이 손바닥에 주먹을 내리쳐 침묵을 깼다. 얼굴은 붉어지고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실바나스에게 속았네! 쇼의 그 첩자란 것들은...”

“그들이 본 대로 보고했지요.” 안두인이 죄책감에 눌러 무겁게 말했다. “첩보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영리한 전술입니다. 사울팽과 실바나스 모두 전쟁에는 도가 튼 괴물들이군요.” 안두인은 심호흡을 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길이 열리면 호드가 즉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네보다 늙은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네.” 벨렌이 안두인을 위로했다. 위로의 말을 했지만, 벨렌도 수심이 깊은 듯 미간에 주름이 졌다.

“자책이든 비난이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티란데는 차가운 분노가 담긴 딱딱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흥분한 겐의 말에 대답하며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줬다. “일단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티란데는 계속해서 읽고 번역하고 요약했다. “실바람 산장과 아스트라나르, 별가루 침탑, 몰산의 망루를 포함한 여러 곳의 전초기지와 순찰대가 공격받았습니다.”

조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안두인은 경탄했다. 자신에게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충격이었다.

“현재, 호드의 진군은 더딘 상태입니다. 말퓨리온은 잿빛 골짜기의 현 사령관인...” 티란데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텔라린 서머문이 팔파렌 강에서 호드를 막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팔파렌 강은 천연 방벽이에요. 게다가 최근의 폭우로 수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안두인은 첩보원의 보고서를 다시 떠올렸다. 군대의 목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나마 무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록했다. “호드에게 공성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 때문에 강을 건너기 어렵겠군요.”

티란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퓨리온이 페달라스로 향해하던 함대를 회군시켰습니다. 팔파렌 강에서 호드를 지연시키면 천금 같은 시간을 벌 수 있죠.”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질문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할까?’ 안두인은 피난민의 겁에 질린 얼굴을 돌아봤다. 호드가 공성 전차 같은 장비로 다르나서스를 친다면...

안두인은 마른 침을 삼키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머리를 비우고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스러운 빛에 부탁했다. “스톰윈드도 즉시 지원군을 파견하겠습니다.”

티란데가 고개를 끄덕였다. 티란데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차원문으로는 군대를 보낼 수 없었다. 소수의 사람만 보낼 수 있었다. 호드의 공격에 대비해 아제로스 곳곳에 거들먹거리며 주둔하고 있는 여러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전투가 다 끝나고야 도착할 것이다.

아니, 늦지 않을 수도 있다. 엘룬과 성스러운 빛이 함께한다면. “티란데 님, 잿빛 골짜기는 칼도레이의 영토지요. 칼도레이는 모든 면에서 호드에 뒤지지 않는 데다 지형은 호드가 아니라 칼도레이의 편입니다. 그리고 티란데님은 그 땅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요. 공성 전차 같은 중화기가 호드 군대에 파멸을 불러올 수 있겠군요.”

안두인은 이어 파수꾼에게 말했다. “말퓨리온 님이 적절하게 조치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말퓨리온 님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톰윈드는 피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도, 이곳으로 오는 모든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안두인 왕이 약속했다고 전해주십시오.”

안두인은 벨렌에게 몸을 돌렸다. “피난민을 맡기고 싶습니다, 벨렌 님. 대성당까지 피난민을 인도하고 돌봐 주시겠습니까?”

“물론이네. 맡겨 주게.”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한 뒤 피난민을 향해 말했다. “자, 이쪽이요, 친구들이여.” 벨렌은 딱딱한 미소를 짓고 있는 티란데에게 목례하고 떠났다.

벨렌을 따라 피난민들이 웅단 깔린 경사로를 내려가자 젠이 안두인에게 말했다. “다르나서스에는 길니아스인도 많네. 내가 가서 그들을 데려와야겠어. 군주가 백성을 잊지 않았음을 알려줘야 하네.”

안두인이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은 젠 님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티란데가 젠을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길니아스인도 안전하게 대피시키겠습니다.”

“고맙네만, 백성들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네. 그들이 아는 사람이 가야 하네!”

안두인은 이해했다. 나이트 엘프가 아무리 길니아스인을 자기 동족처럼 돌봐준다 한들, 그들이 잘 알고 믿을 만한 인물이 나서지 않으면 겐의 백성들은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두려워할 것이다. “테스 공주님은 어떻습니까?” 안두인이 제안했다.

“어디 있는지 알면 벌써 보냈지.” 겐이 못마땅한 기색으로 말했다. 겐은 말을 잠시 멈추고 차원문을 통해 계속해서 들어오는 나이트 엘프를 보며 생각했다. “미아. 미아만큼 백성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네. 게다가, 다르나서스는 미아에게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니까 말일세.”

겐의 말대로 미아 그레이메인 여왕은 다르나서스에 있는 울부짖는 참나무 야영지에 자주 방문했다. 안두인은 재치 있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미아를 좋아했다. 체구는 작지만 강단 있는 그녀보다 이번 일에 적합한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다.

“안두인 국왕님?” 안두인의 기억이 맞다면, 그녀는 파수꾼 에리아드나르였다. “이건 시작일뿐입니다. 산도 말퓨리온 님께서는 다르나서스 뿐 아니라 어둠해안 주변 지역까지 완전히 비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퓨리온 님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군.’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안두인은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대성당이 가득 차면 어디에 나이트 엘프를 수용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나이트 엘프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다르나서스는 대도시였다. 이번 일이 스톰윈드의 시민과 그들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걱정되었고, 전투에 필요한 무기와 병사, 보급품 따위를 어떻게 제시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다.

“스톰윈드 경비대를 파견해 울부짖는 참나무와 다르나서스의 대피를 지원하겠습니다. 말린 대마법사님, 달라란에 소식을 전해 주세요. 상황을 알려주고 자원해서 도와줄 마법사가 있다면 스톰윈드로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차원문으로 더 많은 피난민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젯빛 골짜기에는 준비되는 대로 지원군을 파견하겠습니다. 벨렌 님께 필요한 것은 모두 제공하고 피난민이 머물 수 있도록 공공장소도 모두 제공할 것입니다. 황천빛 사원 대의회에도 사람을 보내 사제를 파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파울 대주교님은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안 말없이 듣던 티란데가 파수꾼 에리아드나르에게 입을 열었다. “그대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말퓨리온과 함께 우리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어요.”

파수꾼이 무릎을 꿇고 나이트 엘프 언어로 대답했다. 공용어가 아니었기에 안두인이 모두 알아듣기에 무리였지만, 무슨 말이든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으며 티란데가 그 말에 감동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티란데가 무릎을 꿇고 에리아드나르를 오랫동안 포옹했다. 그런 다음 일어나 피난민들에게 갔다. 피난민들은 주저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티란데에게 손을 뻗었고, 안두인은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을 읽었다.

티란데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팔을 돌렸다. 이 끔찍한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티란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 남편 곁에서 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희 백성들을 맞이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곳에 남겠습니다.”

티란데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은 말입니다.”



남편 겐 그레이메인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미아 그레이메인 여왕은 다르나서스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겐이 예상한 그대로였다. 오랫동안 함께했고 많은 일을 겪어왔기에 둘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렇다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다녀오란 말을 빠뜨릴 수는 없었다. 미아는 금방 돌아오겠노라 약속했다.

남편에게 사랑이 담긴 키스를 남기고 티란데와 긴 위로의 포옹을 한 뒤, 미아는 차원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파수꾼 에리아드나르가 스톰윈드에 도착하고 겨우 반 시간 만이었다. 미아는 티란데와 포옹을 나누며 그녀가 스톰윈드에 남기로 한 결정이 대역사제로서 치러야 할 대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스톰윈드 경비병이 곧 식량과 긴급 물자를 가지고 도착한다는 약속과 함께 미아와 에리아드나르는 미아가 아제로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달의 신전에 나타났다.

신전은 평소 조용하고 청명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피난민들로 붐비고 있었다. 비록 질서 정연하고 다들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고 있었지만, 불안한 목소리가 부드럽게 솟아오르는 분수 주변을 떠도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와 에리아드나르를 위해 차원문을 열었던 마법사가 깜짝 놀라 외쳤다. “미아 여왕님! 여왕님이 친히 오실 줄이야!”

“그렇게 놀랄 것 없어요.” 미아는 이렇게 말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나이트 엘프가 스톰윈드로 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주고서 평소처럼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아스타리 스타시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당연히 오실 줄 알았지요.”

두 여인은 포옹했다. 여왕은 측근을 두지는 않았지만, 이 부드러운 음성과 녹색 머리의 여사제만은 각별하게 대했다. 둘 사이에는 항상 신뢰가 있었다.

미아가 아스타리에게 조용히 물었다. “모두 잘 견디고 있나요?”

“저희는 칼도레이예요.” 아스타리는 그렇게만 말했다.

미아는 목이 메었다. 겐은 자신의 아내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이번에 전해준 소식은 두렵기 그지없었다. 겐은 미아에게 다르나서스의 모든 길니아스인을 스톰윈드로 무사히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대피가 끝나면 최대한 빨리 돌아와 달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았다. 미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다. 남편이 뭐라든, 다른 누가 뭐라든 미아 그레이메인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

“이곳에 머물겠어요. 우리 백성이 무사히 떠나고 나면 여러분을 돕겠어요.”

“미아 여왕님, 그레이메인 폐하께서...”

미아가 아스타리의 말을 막았다. “겐은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긴장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아스타리의 입술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어렸다. “폐하는 여왕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요.”

“이제 일을 시작하죠.” 미아는 마법사에게 몸을 돌렸다. “앨리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폐하.”

“함께 울부짖는 참나무로 가서 대피를 도와주겠어요?”

“물론입니다. 길니아스인을 돕게 되어 영광입니다.”



실바람 산장에 지원이 속속 도착했다. 텔라린은 제시간에 호드를 물리칠만한 지원이 도착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아예 출발을 못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팔파렌 강은 호드의 발을 묶고 더불어 오크와 트롤 및 기타 호드 병사들을 물귀신으로 만들기에 완벽한 곳이었다.

다르나서스에서부터 쉬지도 않고 날아오느라 탈진해버린 드루이드가 말퓨리온의 편지를 가져왔다. 그리고 에리아드나르가 텔라린에게 전하는 소식도 가져왔다. 티란데는 안두인 왕과 함께 있으며, 안두인 왕은 다르나서스 대피를 지원하고 지원군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말퓨리온은 텔라린을 지원할 드루이드들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드루이드는 곧 도착할 것입니다.” 지쳤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다. “나무와 물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연과 함께할수록 적들은 더욱 절망할 것입니다.”

텔라린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잿빛 골짜기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텔라린은 지친 드루이드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오라 명령했다. 그런 다음 편지를 펼쳤다. 대피가 시작되었다니 다행이었지만, 걱정도 있었다. 탐험가 연맹 드워프들 때처럼 차원문은 한 번에 한 명씩, 많아야 두세 명 정도만 통과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먼 거리를 단숨에 이동할 수 있는 놀라운 여행 수단이지만, 전 도시가 대피하기에는 적합지 않았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기에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최대한 오래 호드를 붙잡아둬야 한다. 놈들이 우리 땅을 밟을 때마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텔라린이 강렬한 희망을 품고 한 말이 현실로 만들어줄 방법을 말퓨리온이 제안하고 있었다.

대드루이드는 편지에 썼다. ‘페더문 장군에게 소식을 전했다. 페더문 장군의 병사가 타고 있는 함대는 즉시 회항할 것이다. 신비술사에게도 그대를 지원하라 명했으며 나 또한 곧 잿빛 골짜기로 갈 것이다.

용기를 내라, 서머문 사령관. 그대는 혼자가 아니니,
엘룬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차원문이 빙빙 돌며 열리면, 차원문을 이용할 엘프들은 보통 환호하기 마련이었다. 지금까지 다르나서스의 조심스러운 환영만 받아왔던 마법사는 차원문을 나서며 깜짝 놀란 미소를 지었다. 몇 분 동안 차원문이 차례로 열리고 닫히면서 수십의 곰과 까마귀, 밤호랑이가 각 차원문에서 나오자 터질듯한 환호가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산도.’

“여러분의 화염이 필요할 것입니다.” 텔라린이 두 마법사에게 말했다. 둘은 각자 자신들을 사르보니스와 팔라라라고 소개했다. “태워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팔파렌 강을 가로지르는 정교한 나무 아치와 상감석으로 장식된 다리가 첫 목표였다. 텔라린은 다리 너머로 한 번에 열 명에서 열두 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파견했다.

그들의 임무도 불과 관련된 것이었다.

페린은 호드에게 공성 전차가 있다고 했다. 침략군이 공성 전차를 몰산의 망루에서 강으로 몰고 온다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강을 건너다면...

다르나서스에 호드가 들어간다면, 하얀색 포석이 깔린 아름다운 산책길을 가득 메우고, 사원을 훼손하고, 다르나서스의 소중한 유물을 약탈하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도시 전체에 엮어 놓은 녹색 생명의 공간을 짓밟고... 텔라린은 이런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 여기서 더 많은 공성 전차와 무기를 못 쓰게 만들수록 그녀의 고향인 어둠해안을 밟는 호드가 더 줄어들 것이다.

걸을 수 있는 엘프라면 누구든 임무가 주어졌다. 평시에는 시민으로 간주하는 재봉사와 음식상인, 여관 주인들조차 몇백 년 동안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이들이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나 부상병처럼 싸울 수 없는 이들은 마법사가 도착했을 때 차원문을 타고 스톰윈드로 갔다.

텔라린은 표면적으로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온 이들이 파수꾼 자매들과 함께 활과 단검으로 무장하고 다리 너머로 조용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비참한 기분으로 바라봤다.

텔라린은 소리보다 느낌으로 페린이 다가움을 느꼈다. 페린이 그녀의 어깨에 따뜻하고 강인한 손을 얹었다. 잠깐이지만 텔라린은 오늘 아침처럼 페린과 다시 고요한 숲에 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안전하고 편안한 다르나서스에서 함께 걸을 수 있다면 더 좋으리라.

마법사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텔라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명령했다. “태워버리십시오.”

사르보니스가 양손을 찻잔 모양으로 쥐고 서로 교차하며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보자 지금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도 눈 덮인 산 정상에서 방심한 페린에게 눈 멍치를 던지던 일이 떠올랐다. 텔라린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지었다.

마법사의 손바닥에서 작은 빛이 일렁이더니 점점 자라나 작은 주황색 화염구가 되었다. 화염구는 사르보니스의 손에서 튀어 올라 다리를 향해 날아갔다. 아름다운 다리가 화염에 휩싸이더니 격렬하게 타오르며 시끄러운 소리로 고요한 밤을 깨웠다.

흐릿한 고함이 텔라린의 귀에 들렸다. 멀리 있는 나무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솟아올랐다. 공성 전차 한 대가 이미 파괴되었다. 그 짧은 생애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뎠던 도시에 돌비를 내릴 기계가 하나 사라졌다.

뒤이어...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페린의 손 아래 텔라린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페린이 말했다.

‘살아 줘.’ 생각과 달리 텔라린의 입에서는 질문이 튀어나왔다. “차원문으로 온 드루이드들과 함께 일한 적 있어?”

“응, 몇 명하고는. 합이 잘 맞을 거야.”

“그럼 그들을 데려가. 놈들이 우리가 예상보다 수가 많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줘.”

페린은 까맣게 탄 작은 나무 조각만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는 강을 바라봤다. 떠내려가는 부서진 다리 조각을 따라 하류를 바라보다 다시 상류를 바라봤다. 페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정확히 당신 말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군.” 페린은 텔라린을 끌어당겨 이번에는 부드럽게 키스한 다음 다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두려운 거 알아. 다칠 게,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두렵다는 걸. 하지만, 절망하지 마.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모두 갚아줄 거야.”

페린은 텔라린의 뺨을 어루만진 뒤 떠났다.

강 너머에서 페린이 뒤를 돌아봤다. 텔라린은 입을 굳게 다물고 파수꾼 반나라를 불렀다. “반나라, 호드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고통을 안겨주십시오.”

‘놈들의 무기를 최대한 많이 파괴해야 해. 방어 병력이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잿빛 골짜기의 뿔뿔한 숲을 이용하여 놈들에게 화살을 날려 서서히 질식사시켜야 해. 놈들에게 사나움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해. 충격받고 경악하게 해야 해.’

방어선을 지켜야 해.’



페린이 잿빛 골짜기에 왔던 것은 몇 년 전이었지만, 이곳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팔파렌 강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저 약간의 시간을 벌어줄 뿐이었다. 자신이 본 대군이라면 시체로 강을 메워서라도 결국 강을 건널 것이다.

페린은 음침하게 웃으며 생각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말이지.’

적이 잿빛 골짜기 지형을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몰랐지만, 사울팽이나 어둠의 여왕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았다. 호드가 침입했다. 그리고 잿빛 골짜기의 입구를 장악했다. 페린이 알듯 사울팽도 알 것이다. 북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팔파렌 강에서 강폭이 가장 좁은 지점은 사비안 폐허 바로 아래라는 사실을. 호드는 그 지역으로 향할 것이다.

페린의 계획은 간단했다.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페린은 드루이드를 모두 모아 빠르게 계획을 설명했다. “놈들은 수적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놈들도 그걸 알죠. 우리 임무는 놈들이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방법을 찾는 즉시 놈들은 공성 전차를 가져올 거예요. 서머문 사령관은 강 저편에서 놈들과 싸울 것입니다. 다른 파수꾼들은 호드가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순찰 중이고요. 호드가 밀고 나올 때마다 순찰대가 뿔피리를 불 것입니다.”

“우리는 사비안 근처 강폭이 좁은 지점에서 적을 맞을 준비를 하고 다른 지역, 저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야 해요.”

드루이드들이 혼란스러운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 드루이드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하죠?”

페린이 씩 웃더니 대답 대신 위쪽을 가리켰다.



첫 번째 공성 전차 파괴 작전이 끝나고 텔라린이 팔파렌 강 서쪽 독으로 부대를 호출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 호드가 밀려오고 있었다. 텔라린은 호드가 오도록 내버려 뒀다.

나이트 엘프들은 뿔피리를 가지고 있었다. 호드가 강 반대편에 집결하여 헤엄쳐 건너기 시작하면 칼도레이가 화살을 쏘 호드의 시체로 강을 메웠다. 적이 무사히 강을 건너면 나이트 엘프들이 놈들을 포위하고 도륙 내고 놈들의 목숨을 끝장내고 화살을 회수한 다음 열심히 강을 건넌 불운한 다음 호드에게 돌려줬다.

전투의 뿔나팔이 울릴 때마다 나무 사이로 드루이드 무리가 이동하도록 하는 페린의 계획이 기가 막히게 잘 먹히고 있었다.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전장과 어울리지 않게 달콤한 뿔나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것 같았다.

텔라린은 사령관의 역할에 집착하지 않았지만, 그 역할을 게을리하지도 않았다. 지금 텔라린은 혼전에 뛰어들어 동료들과 함께 광전사처럼 싸우고 있었다. 멀리 있는 적에게는 화살을 날리고 가까이 다가온 적에게는 문글레이브를 휘둘렀다.

세 명의 트롤, 두 명의 타우렌과 한 명의 블러드 엘프가 강변으로 올라왔다. 타우렌과 두 트롤 전사가 방패로 벽을 치고 최악의 화살비를 막아냈다. 텔라린은 호흡을 길게 늘이면서 조준하고 기다렸다.

약간의 틈이 있었다. 텔라린이 시위를 놓았다.

텔라린의 눈 한쪽에서 보라색 소용돌이가 일었다. 옆에서 싸우던 반나라가 바닥에 쓰러졌다. 줄무늬 깃털 화살깃과 금속 띠와 구슬로 장식된 가느다란 화살대가 반나라의 목에 튀어나와 있었다.

몇백 년 동안 훈련된 감각과 본능이 텔라린의 목숨을 구했다. 아슬아슬한 순간 몸을 휙 돌리자 그 사이로 두 번째 화살이 휙 하는 좌절의 노래를 부르며 날아가 나무 등치에 박혔다.

텔라린은 몸을 틀고 뛰어오르는 동시에 화살을 날렸다. 텔라린은 착지하면서 강 건너편 나무 그림자 속, 두건으로 가린 얼굴 아래에서 반짝이는 작은 빨간 점 두 개를 포착했다.

두건 아래 드러난 병든 것 같은 회청색 얼굴은 엘룬이 축복한 나이트 엘프의 피부색이었다. 녹색 기운이 어린 얼굴, 그 뒤에 보이는 부패의 기운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검은색 얼굴 문신, 번들거리는 진홍색 눈,

실바나스 윈드러너였다.

어둠의 여왕, 호드의 대족장, 수천의 학살자가 있었다. 자연에 대한 경멸, 생명에 대한 증오, 무분별한 행동, 나이트 엘프가 혐오하는 모든 것이 이 괴물 같은 뱀시 하나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가 저기 있었다.

대족장이 쓰러진다면 호드 군대는 자중지란에 빠지리라. 머리를 자르면 몸통은 자동으로 무너진다.

심장이 한 번 뛰기도 전에 텔라린이 시위를 당겼다 놓았다.

하지만, 실바나스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안 돼!’ 텔라린의 입에서 짧고 거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는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새로운 화살비가 쏟아졌다. 텔라린은 지독한 절망에 맞서 싸웠다. 절망은 적을 강하게 할 뿐이니까. 텔라린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엘룬이시여,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소서. 저 괴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기도에 응답하듯 몇 마리의 밤호랑이가 등 뒤에서 포효하고 아스트라나르에서 온 여사냥꾼들이 전투에 합류했다. 지친 전사들이 환호했다.

여사냥꾼 한 명이 델라린에게 달려왔다. 델라린은 계속해서 활을 쏘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산도가 오고 계십니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가 약속대로 도착했다. 이제 반격할 때였다. 다음 단계를 시작할 때였다.
델라린이 여사냥꾼에게 명령했다. “드루이드를 데려오십시오. 산도께 대족장이 여기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남쪽에서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호드 무리가 새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불빛을 향해 몸을 던지는 불나방과 같은 신세였다. 밤호랑이의 입은 웃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잔인한 기쁨에 페린의 거대한 송곳니 주변 근육이 말려 올라가며 미소 비슷한 모습을 만들었다.

계획이 기가 막히게 통하고 있었다. 드루이드들이 밤호랑이나 거대한 새의 형상으로 공중에서 떨어져 내릴 때마다 어리석은 호드 병사들의 입이 사신을 본 듯 짝 벌어졌다. 그것도 위를 쳐다봤을 때나 해당하는 경우였고, 대부분은 위를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열여섯의 드루이드가 잿빛 골짜기의 우거진 나무 지붕을 빠르고 조용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누비고 있었다. 가지 위에 너무 많은 드루이드가 앉으면 쉽게 부러질 수 있었다. 하지만, 페린의 무리는 수백 년 동안 현재의 형상을 취했던 만큼 별달리 의식하지 않고도 순식간에 가지가 부러질지 여부를 계산해냈다.

죽음처럼 조용하게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에 맞춰 완벽한 리듬으로 가지와 가지 사이를 뛰어넘으며 이동했다. 순간, 어떤 소리에 페린의 한쪽 귀가 소리 방향으로 쫓긋 세워졌다. 커다란 머리를 소리 방향으로 돌리고 냄새를 맡았지만, 냄새도, 보이는 것도 없었다. 페린이 다음 가지에 착지하는 찰나, 뒤쪽에서 커다란 폭풍까마귀 둘이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는 부드러운 숲 바닥으로 추락했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힘으로 나무에 내동댕이쳐졌다.

다음번 표창이 대기를 가를 때는 페린도 소리를 듣고 옆으로 도약하며 몸을 뒤틀어 남은 형제들과 함께 살인자를 공격하려 표창이 날아온 방향으로 달렸다. 형제 중 한 명은 운이 없었다.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가지에서 굴러떨어졌다.

블러드 엘프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 만들던 잔인한 바람이 방향을 바꿔 불어오며 악취가 페린의 코를 찔렀다. 하지만, 도적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저기다!’ 어리석은 신도레이가 창백한 달빛 아래 뛰어올라 이쪽 나뭇가지에서 저쪽 나뭇가지로 도약하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페린과 다른 드루이드가 도적을 추격했다.

도적은 일부러 전선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도적은 이곳이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빛나는 자신의 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성한 나뭇잎과 가지와 뿌리가 칼도레이 형상으로 모습을 바꾼 드루이드에게 복종했고 침략에 분노한 숲의 힘이 그 드루이드의 손에 쥐어졌다.

나무가 깨어나고 나뭇잎이 진동하며 침입자를 붙잡을 준비를 했다.

다시 두 개의 표창이 빙빙 돌며 날아왔다. 페린과 다른 드루이드들은 몸을 뒤틀며 표창을 피했다. 숙련된 형상으로만 나뭇가지에 착륙하거나 하늘로 날아갈 수 있었다. 분노한 청회색 드루이드 센다가 날렵하게 블러드 엘프를 덮쳤다. 센다의 발톱이 늘어나고 기다란 송곳니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리고 센다의 목이 갈라져 열리고 분수처럼 피를 쏟으며 땅으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페린의 눈에 들어왔다.

그 앞쪽에서는 자신들을 조롱하는 먹이에 너무나 집중한 페린의 형제자매들이 뺨쪽 튀어나온 가지 하나로 동시에 착지했다. 하지만, 도적은 거기에 없었다. 가지가 부러지며 내는 끔찍한 소리가 드루이드들이 추락하며 내는 비명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다. 그 뒤로 무시무시한 충돌음이 이어졌다.

너무 늦었다. 그들이 떨어지는 순간 페린은 알았다. 드루이드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도적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남은 드루이드가 그들을 돕기 위해 나뭇가지를 뛰어넘고 나무 사이를 날아왔다. 페린도 정신을 가다듬고 뒤를 따랐다.

심장이 한 번 박동하는 시간이 지나고 강력한 충성이 울려 퍼졌다.

도적에게 동료가 있었다. 야단났군. 슬픔과 분노에 빠진 페린은 도적 한 명 죽이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가라.” 그때 한 마디 속삭임이 들려왔다.

다른 이들은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겠지만, 페린은 산도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였다.

페린은 자신의 스승을 볼 수 없었지만, 말퓨리온은 페린을 볼 수 있었다. 겉모습뿐 아니라 그의 분노와 고통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대드루이드는 정확히 페린이 듣고 싶지 않은 말, 하지만 필요한 말을 했다.

페린은 항의하듯 나무에 발톱을 단단히 박아 넣었다. 분노로 시야가 붉어졌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명령을 거부했다. 하지만, 산도가 맞았다. 도적과 사냥꾼은 대드루이드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페린은 살아남아 계속 싸워야 했다.

치유의 에너지가 몸을 감싸며 팔다리에 활력이 돌아오고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영혼을 위로해주지는 않았다. 아래에서는 도적과 사냥꾼, 그리고 사냥꾼의 소환수가 페린의 형제들을 학살하고 있었다. 그들의 비명이 들렸다. 그들의 피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페린은 떠나야 했다.

고뇌의 포효와 함께 페린은 자신을 추스르고 몸을 돌려 강을 향해 달렸다.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페린은 가지 사이를 뛰어넘으며 들끓는 분노를 움직이는 일에만 쏟아부었다. 페린이 팔파렌 강을 끼고 남쪽으로 달려 델라린이 싸우는 곳에 거의 다다랐을 때, 무언가 갈라지고 맞물리면서 내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페린은 노스랜드에서 싸웠고 얼음과 눈의 소리를 들어 봤다. 빙하가 파랗고 푸른 거대한 냉동 해수 조각으로 갈라지다 떨어져 내리며 극한의 바다 깊은 곳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리도 알았다. 마법으로 얼음이 만들어지는 소리였다.

호드가 팔파렌 강을 얼리고 있었다.

‘왜 이걸 생각 못 했지?’ 페린은 자신을 저주했다. 두꺼운 나뭇가지를 밟고 속도를 올리자 근육이 지금까지보다 더 빠르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다. 갑자기 터져 나오는 주황빛에 눈을 질끈 감았다. 호드 마법사 중 하나가 동료를 위해 조명을 만든 것이다. 페린은 불운한 형제처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톱을 가지에 박아 넣었다.

놈들은 이제 그 추잡한 언어로 고함치듯 주문을 노래하고 있었다. 소중한 몇 초의 시간이 흐른 뒤, 페린은 고개를 흔들며 눈을 뜨고 위쪽의 가지로 다시 달렸다.

드루이드와 그의 무리가 강 위아래로 달려나가 강기슭으로 올라가려는 호드 병사들을 공격할 때, 다른 나이트 엘프들이 합류했다. 드루이드들은 고위 신비술사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비술사들은 초기 단계에서 다리와 공성 전차를 불태우며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었지만, 실바나스의 궁수들에게는 최우선 제거 대상이었다. 아마도 그 궁수 중에 실바나스 본인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지금 강을 뒤덮은 얼음을 녹여줄 신비술사가 없었다.

마법으로 만든 빛이 사라졌다. 밤이 다시 내렸고 밤은 칼도레이의 시간이었다. 대부분 호드 종족은 태양을 좋아했다. 숲 그림자보다 작렬하는 사막의 태양에 더 익숙한 눈에 밤은 적이나 다름없었다. 밤호랑이의 형상일 때는 시야도 밝아졌다.

페린은 달빛을 산란하며 반짝이는 아래쪽 빙판의 상황을 나뭇잎 사이로 훑어봤다. 첫 번째 호드의 돌격대는 이제 강기슭까지 이르렀다. 그들 중 일부는 적에게 다가가려 서두르다 미끄러지고 쓰러졌지만, 그렇다고 해봐야 그저 자존심이 조금 상할 뿐 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이미 상당수가 강을 건넜다. 분명 팔파렌 강의 다른 여울목에서는 더 많은 병사가 강을 건넜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대군주가 있었다.

페린은 화가 났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뼈를 부수는 망치 소리, 승리의 환호성과 죽음의 단말마, 푸르른 잿빛 골짜기의 비옥한 냄새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피 냄새 등, 전투의 불협화음을 걸러내고 페린은 오로지 달리는 오크에만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지금 저 오크를 쓰러뜨릴 수 있다면...’

가지를 몇 개 건너뛰고 다시 한번 도약하자 노련한 숨씨로 맹렬하게 도끼를 휘두르는 흰머리 오크에게 한 달음이면 닿을 거리에 도착했다. 희미한 빛 아래 맹렬한 전투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사울팽은 드루이드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도 말이다.

페린은 턱을 넓게 벌리고 발톱을 길게 뽑으며 달려나갔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쿵쾅거렸다.

다른 빛이 터져 나왔다. 마법사가 다시 주문을 외운 것이다.

사울팽과 페린의 눈이 마주쳤다.

페린은 너무 멀리 있었다. 사울팽의 도끼가 내려가는 모습과 동시에 목을 스치는 세찬 바람을 느꼈다. 타격은 강력했고 도끼날은 너무 날카로웠다. 순간적으로 시간이 느려졌다. 페린의 잘린 머리가 허공을 날았고 페린은 자신의 눈에 비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페린에게 자신의 실패를 이해할만한 시간이 없었다. 곧 암흑이 덮쳐왔기 때문이었다.



나이트 엘프 함대는 험악한 날씨를 뚫고 페탈라스로 향해하고 있었다. 폭풍 때문에 몇 대의 함선이 항로를 이탈했고 일정도 지연됐다. 선원들에게 최고 속도로 향해하라 명했지만, 코드레사는 실리더스의 가혹한 태양과 타오르는 모래를 서둘러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코드레사와 샀드리스 페더문은 서로에 대해 알았으며 당연히 티란데에게 충성했다. 하지만, 코드레사가 샀드리스 직속으로 복무한 적은 없었다. 윈드우드 사령관 지휘 아래 복무하게 되어 기뻐하던 젊은 친구 델라린과 새로운 임무에 관해 이야기할 때 차분하고 담담한 척했지만, 아나리스 윈드우드는 그저 유명할 뿐이었고 샀드리스 페더문은 전설이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하기도 했다.

코드레사의 걱정은 기우였다. 샀드리스와 티란데와의 우정이 깊었던 건 둘이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나이트 엘프 장군이자 신화에나 나올 법한 궁수인 샀드리스는 따뜻하고 친근한 성격이었다. 샀드리스는 능률을 인정하고 현신을 칭찬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부대를 이끌고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규칙이 있되 합리적이었으며, 훈련하되 학대하지 않았으며, 꾸짖을 때조차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샀드리스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종종 자신의 선실로 코드레사를 초대했다. 매일 포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날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졌다.

샀드리스가 밤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을 발견한 건, 둘이 화살깃으로 가장 좋은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을 때였다. 코드레사는 샀드리스의 시선을 따라갔고, 순간 얼어붙었다.

새였다. 갈매기보다 훨씬 크고 밤에 나는 새,

폭풍까마귀였다.

폭풍까마귀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다. 코드레사와 샀드리스는 폭풍까마귀가 나이트 엘프로 모습을 바꾸며 갑판에 내려앉자 의자에서 일어났다. 드루이드는 탈진해서 떨고 있었다. 무척 어려 보이는 드루이드였다. ‘다른 드루이드는 다 어디로 가고 이제 갓 훈련이나 마쳤을까 싶은 드루이드를 보냈을까?’

샐드리스가 일어나려 애쓰는 드루이드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어린 자매여.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말하세요. 무슨 일이죠?”

코드레사가 물을 따라주자 샐드리스가 무릎을 꿇고 드루이드에게 건넸다.

단숨에 잔을 비운 드루이드가 말했다. “호드가, 호드 군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실리더스가 아니라 다르나서스를 향해서요. 말퓨리온 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모두 회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쓴 듯, 차가운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안 돼.” 코드레사가 낮게 탄식했다. 다르나서스는 안 된다. 그 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든가. 그리고 델라린...

델라린은 호드 군대의 진격로 한가운데 있었다.

샐드리스가 말했다. 수천 번의 전투를 겪은 전사답게 코드레사보다 회복이 빨랐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다 계획적이었어요.” 그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호드도 우리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겁니까?”

드루이드가 대답했다. “네, 장군님. 다른 함선보다 장군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미안한 부탁을 해야겠군요. 다른 함선에도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뒤따라오는 함선들에도 말이예요.” 이제 다 허사였지만, 티란데는 호드를 기만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함대를 출발시켰다.

“물론입니다.” 젊은 드루이드가 대답했다.

코드레사는 드루이드가 믿음직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샐드리스가 명령했다. “그럼 가서 전하세요. 가서 그들의 드루이드에게 자연으로 하여금 바람을 불러오라 하십시오. 즉시 다르나서스로 귀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초췌하고 창백한 모습의 드루이드가 맡겨달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샐드리스가 미소 지으며 드루이드의 어깨를 힘있게 움켜쥐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쉴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이 뭐죠?”

“테샤라입니다.”

샐드리스가 근엄하게 말했다. “테샤라, 그대가 방금 우리를 구했습니다.”

지치고 두려워하던 젊은 드루이드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상한 뼈격거림이 강이 열면서 나는 소리라는 사실을 델라린이 알아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그리고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승리의 함성이 들려왔다. 이제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살기등등한 호드 병사들이 내지르는 함성이었다.

텔라린은 단 한 번도 팔파렌에서 호드를 저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최대한 많은 시민을 대피시키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칼도레이가 전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연시킬 생각뿐이었다. 그렇다 해도, 이걸 충격이었다. 호드를 막기 위해 그 많은 생명이 스러졌음에도 호드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전령이 계속해서 기다리던, 음악처럼 달콤한 소식을 가져왔다. “말퓨리온 님이 오고 계십니다!” 드루이드들이 어린 전령에게 말로른처럼 하얗게 빛나는 수사슴, 달의 입맞춤을 받은 수사슴을 보았다고 말해줬다. “말퓨리온 님이 몇 명만 남아 자신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퇴각하여 사령관님을 찾아가라 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룬이여.’

“적군에 실바나스가 있습니다.” 텔라린이 전령에게 말했다.

전령의 눈이 커지며 말을 잃었다.

‘말퓨리온 님께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말퓨리온 님이 어둠의 여왕을 만나시면... 죽는 것 말고 무얼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텔라린이 물었다. “이름이 뭐죠?”

“타바르입니다.”

“특기가 뭐죠, 타바르?”

불안감이 사라졌다. 타바르는 짧게 웃어 보이더니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졌다.

저렇게 어린데도 이토록 대단한 솜씨라니, 텔라린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타바르에게 감탄했다. 텔라린은 아나리스를 죽인 음흉한 얼굴의 포세이큰이 생각났다. 그 공격에서 독 바른 칼에 죽은 이들 중 누구도 늠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분노가 차올랐다. 텔라린은 그 분노를 이용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계획이 하나 떠올랐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드루이드를 찾아가서 팀을 모아 저에게 오십시오, 타바르. 말퓨리온 님이 시간을 벌어들라 하셨으니, 그리해야죠.”

숲을 달리는 텔라린의 부대 뒤로 전투의 소리가 따라왔다. 팔파렌 강에서의 패배를 뒤로하고 다음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소리였다.



안두인은 잠들 수 없었다. 잿빛 골짜기의 전투가 시작된 이후로 되는데로 잠깐씩 쉬는 것이 고작이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걸치고 촛불을 밝힌 뒤 지도실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다. 지도실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고 들고 온 촛불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눈앞에 놓인 세계를 바라봤다.

잿빛 골짜기가 보였다.

안두인은 자신과 티란데에게 왔던 끔찍한 편지를 생각했다.

‘팔파렌을 잃었습니다.

실바나스가 여기 있습니다.

‘다르나서스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자네도 잠이 안 오나 보군.”

평상시 딱딱하던 겐의 얼굴도 일렁이는 촛불 아래에서는 부드러워 보였다.

젊은 왕은 지도로 다시 눈을 돌렸다. “미아 여왕님으로부터 소식은 없었습니까?” 울부짖는 참나무의 길니아스인들은 여왕이 떠나고 얼마 안 되어 스톨윈드로 왔다. 여왕은 다르나서스의 대피를 돕기 위해 더 머물기로 했고 안두인은 여왕의 결정이 불편했다.

겐이 대답했다. “편지를 보냈네. 고집불통 여편네 같으니. 마지막 남은 사람까지 모두 보낸 뒤에 오겠다고 하는군.”

“겐 님 고집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군요.” 안두인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겐이 툭툭거렸다. “너무 오래 함께해서 얼마나 됐는지 잊어버릴 지경일세.” 걱정하지 않는 척했지만, 가족의 일에 있어서 겐 그레이메인은 생각보다 알기 쉬운 사람이었다. “자네는 어떤가?”

안두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몸짓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지도에는 이 정도 규모의 군대를 나타낼만한 모형조차 없습니다... 다르나서스를 잃을 거예요.”

“알고 있네.” 안두인 옆으로 다가오는 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훌륭한 전략이었네. 호드에 감탄할 지경이야.”

안두인이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처음엔 테라모어더니 이번엔 다르나서스입니다. 놈들은 하늘안개 섬을 제외한 칼림도어 전체를 장악할 것입니다. 장담하는데, 그렇게 되면 드레나이도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드레나이는 포위된 나이트 엘프를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몇몇 용감한 드레나이는 그들을 돕기 위해 다르나서스로 갔다. 다르나서스가 함락되고 나면 만족을 모르는 호드는 하늘안개 섬으로 칼끝을 돌릴 것이 분명했다.

“그럴 걸세.”

젊은 왕이 피곤한 눈을 비비며 말을 이었다. “겐 님의 생각보다 더 영리한 계획입니다.”

“응?” 겐은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애긴가?”

“호드는 하나로 뭉친 얼라이언스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치면, 무엇도 저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설사 해군이 없다 해도 말입니다.” 안두인은 불타는 군단과의 전쟁 초기 부서진 해변에서 얼라이언스와 호드 모두 함선에 큰 피해를 받고 난파했던 일을 생각하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갈라선다면 하나씩 사냥당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안두인은 이제 스승이자 친구가 된 거친 전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칼도레이가 세계수를 잃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수해야지. 언더시티로 진군하는 걸세.”

“그러면 호드는 다르나서스를 인질로 잡을 것입니다.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도시가 함락되기 전에 차원문으로 모두 대피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언더시티나 실버문을 공격하면 호드는 세계수를 파괴하고 전투에서 잡은 포로를 모두 죽여버리겠지요. 나이트 엘프가 그런 일을 용납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젠의 얼굴에 깊은 고랑이 생겨났다. 젠은 대답하지 않았다.

안두인이 계속해서 말했다. 너무 부드러워 거의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길니아스呢요? 제가 칼도레이를 먼저 지원하기로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호드가 수천의 포로를 위협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젠도 그런 사실을 알았다.

“얼라이언스가 분열되면 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젠 님. 단순히 다르나서스를 차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얼라이언스를 분열시킬 도구로 이용하려는 거죠. 실바나스는 우리가 서로 반목하도록 만들 거예요. 거대한 전략입니다.” 안두인은 고개를 저으며 탁자 위에 있는 작은 모형을 바라봤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젠은 오랫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대체 언제 전략에 대해 그렇게 많이 배웠나?”

안두인이 성마르게 웃었다. “전 칼 휘두를 시간에 책을 읽었으니까요.”

“그렇군, 자네는 바보가 맞네.” 그의 말에 놀라 안두인이 고개를 돌려 젠을 쳐다봤다. “자네가 칼도레이를 돕는다고 내가 등을 돌리리라고 생각하다니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내 왕국을 되찾고 싶냐고? 내 백성들에게 고향을 찾아주고 싶냐고? 물론이지! 나이트 엘프의 고통을 외면할 만큼 간절하냐고? 지난 몇 년간 길니아스인을 그토록 아낌없이 도와줬는데? 늑대인간의 저주를 완화해준 덕분에 미쳐 날뛰지 않고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는데?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집까지 내어줬는데?”

젠은 씩씩거리는 듯, 으르렁거리는 듯, 경멸의 소리를 냈다. “아니. 난 절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친절에 배신하는 짓은 하지 않네. 실바나스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네. 그리고 얼라이언스도 이해하지 못하지. 실바나스는 크게 후회하게 될 걸세. 내 말을 믿게나.”

안두인은 충격받은 얼굴로 한동안 멍하니 늙은 왕을 쳐다봤다. 영겁처럼 느껴지던 사건 이후 처음 안두인의 얼굴에 진심으로 기쁜 미소가 피어났다. 모든 절망과 모든 불안과 모든 공포의 한 가운데 마침내 선하고 강력하며 진실한 무엇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성마르고 뚱하고 고집 센 젠 그레이메인, 한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얼라이언스에 등을 돌리고 벽 뒤로 모습을 숨겼던 젠 그레이메인이 그것을 안두인에게 선물했다.

“민습니다, 젠 그레이메인 님. 진심으로요. 끔찍한 어둠을 헤쳐나갈 등대와 같은 말이군요.”

몸을 돌린 두 사내는 문가에 선 티란데를 발견했다. 티란데는 아직도 여사제의 로브를 입은 채였다. 고통의 그늘이 가지지 않던 티란데의 얼굴에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부드럽고 밝은 기색이 돌아왔다. 티란데는 한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두 왕에게 다가갔다.

“나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이렇게 제 영혼이 치유될 줄은 몰랐군요. 감사합니다.”

티란데가 손을 들어 올리고 무언가 중얼거렸다. 숲속 산들바람이 자신의 금발 머리를 간지럽힐 리 없었지만, 바람이 느껴졌다. 찬란한 여름과 생명의 향기를 맡자 바람에 날려가는 바람꽃 씨앗처럼 피로가 사라졌다.

“우리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나서스가 무너진 다 해도요.” 티란데는 고통에 눈을 감았다. “수비군이 아스트라나르로 후퇴했습니다.”

최후의 저항

보석과 같은 도시가
비겁한 자의 손아귀에 놓여 있네.
마지막까지 우리는 저항하리라.
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싸우리라.
저 하늘의 달빛에 의지해,
빛나는 칼날에 의지해,
화살의 노래에 의지해,
우리는 승리하리라.
아니면 사라질 뿐.

‘이제 돌아오시오. 호드가 잿빛 골짜기로 물려들었소. 이제 세계수로 향하고 있대요. 늦기 전에 돌아오시오.’

미아는 전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겐 그레이메인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임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다. 투박한 편지였다. 누가 보면 감정도 없고 심지어 협박 편지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수십 년간 겐과 함께한 미아는 이 간결한 편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너무 걱정되는 것이다.

그가 옳았다.

하지만, 최대한 이곳에 머물기로 한 그녀도 옳았다.

다르나서스의 길니아스인이 모두 스톰윈드로 피난하는 데에는 두어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미아는 다르나서스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머무를 것이다. 미아는 자연스럽게 스톰윈드의 대사가 되었다. 달의 신전에 있는 달샘가에 서 있었기에 점점 늘어만 가는 불안한 나이트 엘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인간의 왕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드물게 주변이 조용해지자 여사제 아스타리가 미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마음이 아프군요. 미아 님이 안전하게 스톰윈드에 계셨으면 하면서도, 한편으로 여기 계셔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도 드네요. 저들은 당신의 말을 믿어요. 당신과 길니아스 사람들은 신뢰를 얻었죠. 스톰윈드라면 안전하다고 말해주신다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스타리의 친절함에 미아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제 남편이 반대편에서 피난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대피할 거예요.” ‘어떻게든요.’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스타리가 미아의 귀에만 들리도록 조용하게 말했다.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적어도 지금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사실을 아는 그녀의 말에 미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부끄럽군요.”

“그런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알아요. 당신이 맞아요.” 미아는 다시 군중에게 시선을 돌렸다. “스톰윈드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를 찾아 줄 거예요.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군대를 보낼 거고요.” 미아는 당당하게 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제 남편이 군대의 선봉에 설 거예요.”

아스타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믿어요.”



타바르가 모은 드루이드 중에 페린은 없었다.

텔라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불안을 몰아냈다.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싸우고 있으리라. 죽었다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곧 더 많은 생명이 전사자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텔라린도 예외가 아니었다. 텔라린은 처음 파수꾼이 되었을 때부터 죽음을 받아들였다. 목숨을 걸고 칼도레이를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였고 지금, 텔라린은 최선을 다해 시간을 벌고 있었다.

죽은 이들은... 엘룬의 축복 속에 있었다. 그들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 비록 모습은 달라질지라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텔라린이 계획을 말하자 예상대로 반대가 빗발쳤다.

“그들은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가족이라고요!” 아스트라나르 여사냥꾼 중 하나인 마릴라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벌써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텔라린이 대답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물론, 그들의 육신은 경건하게 땅으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죽은 이들을 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대피하고 있는 수천의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면요. 죽은 이들은 제 일을 했어요, 마릴라. 목숨을 바쳐 무고한 생명을 구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구할 겁니다.”

텔라린은 강제로 명령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계획 때문에 스스로도 괴로웠다. 코드레사가 저기 누워 있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페린이었더라도?

그리고 대답은 분명했다. 설령 그들이 자신의 뒤에 누워 있다고 해도, 그렇다. 텔라린은 할 수 있었다. 나이트 엘프라면 누구나 우리의 빛나는 도시를 호드가 더럽히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겁니다.” 텔라린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조용히 명령을 수행하러 떠나는 이들에게 말했다.

텔라린은 몇 년 전 호드가 실바람 산장을 점령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추적해 죽인 뒤 경고의 의미로 시체가 썩어가도록 내버려 둔 이야기에서 지금의 음침한 계획을 착안했다.

나이트 엘프는 아스트라나르를 살살이 뒤져 신중하게 전사자의 시체를 골랐다. 한때 친구였던 시체들을 조사하여 검과 망토, 기타 옷가지들로 상처를 가릴 수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깊은 숲속으로도 수색대를 내보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도적의 손에 죽은 시체를 회수하기 위해서... 대체 며칠이나 지났을까? 며칠인지 잊어버렸다. 너무 많았다. 이곳에서 잠잘 시간도 빼앗긴 채 되는대로 음식을 입에 쑤서 넣으며 가장 뛰어난 두 명의 호드가 지휘하는 아군의 여덟 배가 넘는 호드 대군을 막기 위해 끝도 없이 싸운 날이 너무 많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더 끔찍할 것이다.

텔라린은 심장이 부서질 것 같은 임무로 돌아갔다. 무슨 이유인지 텔라린은 아나리스를 죽인 포세이큰의 칼을 보관했다. 허리춤에서 그 칼을 꺼내 아직 치명적인 독이 남았는지 점검했다. 흐릿하기는 했지만, 아직 남아 있었다. 전 잿빛 골짜기 사령관의 말라붙은 피와 함께. 화살에 죽은 파수꾼에게 다가가 그 곁에 무릎을 꿇고 화살을 잡아 뽑은 뒤... 독 묻은 칼을 상처에 찔러 넣었다.

뒤에서 몇 명인가 조용히 숨을 삼켰고 텔라린도 가슴이 아팠다. ‘용서하십시오. 바라건대, 그대가 오늘 많은 생명을 살릴 거예요.’

끈적끈적한 검은 독액이 상처 부위에 잘 보이도록 텔라린은 칼을 기울여서 뽑았다. 그런 다음 다른 시체로 다가갔다. 마침내, 나머지 파수꾼도 그녀를 따랐다. 지금 이 순간, 텔라린은 그들이 너무 고마웠다.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텔라린을 지휘관으로 신뢰한다는 표시임을 알기에.

타바르가 독약을 확보하는 끔찍한 임무에 자원했다. 이런 임무를 맡기는 자신을 저주하며 텔라린은 젊은 드루이드에게 감사를 표했다.

텔라린이 말했다. “당신은 재능도 실력도 매우 뛰어나군요.”

타바르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칭찬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살아 돌아오기 어려운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타바르는 진지하게 주변의 시체들을 가리켰다. “죽는다면, 저도 저들과 자랑스럽게 함께할 것입니다.”

타바르의 용기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텔라린은 참았다. 누구든 살아남는다면 스러져간 이들의 명예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비가를 노래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을 엘룬계서는 알고 계신다.

“몸을 숨기는 숨씨는 대단하던데, 죽이는 숨씨는 어떤가요?”

타바르는 잔인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만은 어려 보이지 않았다. “꽤 합니다.”

“그럼 위장은요?”

“죽여주죠.”

텔라린은 웃을 뻔했다. “못 하는 게 없는 것 같군요, 타바르.” 텔라린은 그렇게 말한 뒤 다시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제 마음에 드는 대답 말고 진심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에게는 실패할 여력이 없습니다.”

타바르 또한 진지하게 받았다. “필요하다면 목숨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장도 잘 합니다.”

“보여주세요.”

타바르는 머뭇거렸다. “지금요?”

“위장에 필요한 옷은 나중에 준비해도 됩니다. 지금은 당신이라는 물감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도 타바르는 머뭇거렸다. 텔라린이 더는 안 되겠다는 듯 몸을 돌리는데 손 하나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단단한 손이었다. 나이트 엘프보다 손가락이 짧고 손바닥이 넓었다. 텔라린이 돌아서자 잘생긴 인간 남성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이게 최선입니다.” 타바르가 스톰윈드 역양이 똑똑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인제야 칼도레이의 긴 귀가 텔라린의 눈에 들어왔다. 웬일인지 그 귀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다. 텔라린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타바르가 몸을 똑바로 펴자 그를 둘러싸던 기만의 그림자가 떨어져 나갔다.

텔라린은 신중했다. “포세이큰도 가능합니까?”

타바르는 씩 웃었다.



모든 것이 속임수에 달려 있었고 그건 텔라린의 장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였다. 그 외에는 텔드랏실을 향한 호드의 무자비한 진군에 맞서 싸우다 공성 전차의 바퀴에 짓밟히는 길밖에 없었다.

정찰병들이 호드의 정찰병이 몇 시간 거리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텔라린의 병력은 아스트라나르를 둘러싼 숲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이때, 텔라린은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있었다. 수월하게 나무를 타던 페린이 생각났다. 나뭇가지 위에 앉아 텔라린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며 장난스럽게 꼬리를 흔들던 페린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페린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페린을 위해 울어야 할 텐데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래서 스스로 페린이 어디선가 싸우고 있다고 되뇌었다. 엘룬계서는 호드를 죽일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페린은 싸움을 좋아했지.

멋진 싸움을...’

첫 번째 시험 상대는 호드 정찰병이었다. 호드 정찰병들이 이상한 점을 눈치챈까? 텔라린은 생각했다. ‘피곤해 보이는군’ 아니나 다를까, 고작 몇백 미터 밖에 나이트 엘프가 몸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아스트라나르 호수 경계를 대충 살피고 있었다. 정찰병 중 블러드 엘프 한 명이 시체를 살펴보기 위해 발로 시체를 뒤집었다.

“도적이 쓰는 칼이군.” 블러드 엘프가 말했고,

“여기도 있어.” 트롤이 대답했다. 트롤은 두 번째 시체의 냄새를 맡았다. “제길.”

텔라린은 긴장했다. 저 트롤이 계속 조사할까? 망토를 들춰 가려둔 검상을 발견하게 될까? 그렇게 되면 정찰병들을 죽이고 호드 구역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다.

트롤이 이어 말했다. “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블러드 엘프가 입을 열었다. “산 놈들은 도망친 것 같군. 겁쟁이들 같으니.”

“그 겁쟁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죽였는지 생각하라고.” 트롤이 대답했다.

다른 정찰병이 어깨를 으쓱했다.

텔라린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시간이 흘렀다. 호드 보병이 도착하여 텔라린이 의도한 대로 방어에 유리한 섬에 본진을 차렸다.

마차와 짐마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움직이지 않고 있으려니 근육이 저렸지만, 마차 중 하나에서 대군주 사울팽이 내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팽팽하게 긴장됐다. 텔라린이 본 어떤 호드 병사보다 단정하고 신중한 모습이었다. 다른 병사가 알아차리지 못한 점을 사울팽은 알아차릴까?

알아차리지 못했다.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지 간단하게 물어본 뒤 여성 오크가 도적으로 나이트 엘프들을 제거하자고 제안하자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제안을 승인했다.

텔라린의 사거리에 사울팽이 들어왔지만, 활을 쏘지는 않았다. 누구도 쏘지 않았다. 텔라린은 병사들과 자신의 절제와 수양에 대해 엘룬계 조용히 감사했다. 한 시간 후, 혐오스러운 공성 전차가 주도로를 메우며 끝도 없이 아스트라나르로 몰려들었다.

텔라린은 나무를 타고 내려가 더 아래쪽 가지에서 다시 감시를 시작했다. 여관의 입구뿐 아니라 내부 장식까지 잘 보일 위치에 알맞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텔라린은 다른 가지에 앉은 타바르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타바르도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 사라졌다. 반 시간 후, 다른 포세이큰보다 키가 큰 포세이큰 하나가 실바나스 윈드러너의 개인 호위병 표식이 있는 갑옷을 입고 여관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세 번 뿔

시간이 지나서야 그 포세이큰이 타바르인 것을 알아봤다. 텔라린은 생각했다. ‘엘룬께서 그대에게 재능을 내려주었구나. 비록 어둠의 재능일지라도. 엘룬의 축복이 그대에게 계속되기를...’

타바르가 당당하게 여관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달린 마지막 시험이었다. 타바르가 성공한다면...

타바르가 여관 입구에서 멈췄다. 텔라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에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포세이큰의 기이하고 음침한 음색에 감탄했다. 굉장한 숨씨였다.

“사울팽 대군주님이십니까? 지금 밖으로 나와보십시오.”

하지만, 대군주 사울팽은 그 말을 들을 기분이 아니었다. 잠시 노려보는 것으로 타바르를 꼼짝 못 하게 만들더니 다시 지도로 주의를 돌리고 텔라린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몇 마디 했다. 소리가 잘 안 들렸다.

타바르는 다시 시도했다. “대족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대군주님?”

텔라린은 얼굴을 찌푸렸다. ‘조심해, 타바르.’

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히도 사울팽이 타바르의 과잉 연기를 의심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다 사울팽이 멈췄다.

‘설마...’

아니었다. 단지 탁자에 놓고 온 도끼를 가지러 갔던 것뿐이었다.

그런데, 사울팽이 눈치채지 못한 것을 다른 오크가 봤다. 그 오크가 사울팽과 타바르 사이에 끼어들어 무언가 말하는 모습에 텔라린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타바르가 말했다. “나는 여왕님의 사절이요. 그걸로 부족하단 말이요?” 다소 당황한 타바르의 목소리를 듣고 텔라린은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달라고 엘룬께 기도했다.

사울팽이 도끼를 잡고 뭔가 이야기했지만 텔라린에게 들리지는 않았다.

“명령입니다. 밖으로 나오십시오, 대군주님. 대족장님을 얼마나 기다리게 하실 생각이니까?” 타바르는 침착함을 되찾고, 거의 지루하다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텔라린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타바르도 느끼는 것 같았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찢개지는 것 같았다.

사울팽이 앞으로 나서자 이제 텔라린에게도 그의 말이 들렸다. “대족장의 수하가 아니로군. 말하라, 나이트 엘프. 말퓨리온은 네놈을 뭐라 부르느냐?”

‘엘룬이시여... 안 돼, 제발...’

“칼을 뽑아라, 암살자. 아니면 겁쟁이처럼 도망치다 죽어라!”

텔라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호드의 대군주에게 단검을 뽑아 휘두르는 타바르,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재기 넘치는 타바르에게 사울팽이 돌진하는 모습을 분노와 슬픔에 잠겨 무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타바르의 공격은 빗나갔다.

그리고 사울팽의 공격이 젊은 나이트 엘프의 목을 자르고 들어갔다.

타바르가 바닥에 쓰러지며 변장이 벗겨졌고, 텔라린은 무력한 눈물 너머 마지막으로 타바르의 원래 얼굴을 봤다. 사울팽도 그 얼굴을 봤다. 세월의 풍상이 새겨진 늙은 오크의 얼굴에 놀라움이 드리웠다. 그도 상대가 이렇게 어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사울팽이 무언가 말했다. 자상하다고 해도 될 정도의 목소리였다. 타바르는 죽기 전에 대군주의 장화에 침을 뱉었다.

타바르에게는 이미 늦었지만, 사울팽은 밖으로 나왔다. 텔라린은 고통에 빠져 자신만을 생각했지만, 그녀가 틀렸다. 텔라린이 나뭇가지를 꼭 움켜쥐었다. ‘당신은 성공했어요. 평화롭게 잠들어요, 타바르.’

“잘 들어라!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호드에게 상기시켜줘야 하겠나?” 사울팽은 분노를 줄기줄기 내뿜으며 외쳤다. “호드는 지금...”

사울팽이 말을 멈췄다.

‘안 돼!’ 텔라린은 속으로 외쳤다.

전투에 지치고 피로한 늙은 오크가 조금만, 조금만 더 망심해주면 그러면 매복은 성공할 터였다.

‘조금만 더.’

호드의 대군주가 이상한 낄새를 눈치 채고 그나마 안전한 아스트라나르 여관으로 달려갔다. 여관에 도착하기 직전, 그의 발아래 땅이 공격을 준비하는 야수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공기가 두껍고 무거워졌다. 짜릿한 성공의 예감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텔라린은 사납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귀를 막았다. 절벽에서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귀를 막았는데도 충격파로 귀청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말퓨리온 스톰레이지의 모든 힘과 은혜와 분노가 사울팽의 코앞에서 폭발했다.

“로크 나라쉬!” 사울팽이 소리쳤다.

“무기를 들어라.” 그래, 텔라린은 생각했다.

‘지금이다.’ 타바르를 위한, 반나라를 위한, 마우라를 위한, 심지어 아나리스를 위한, 그리고 페린을 위한, 죽어간 모든 이들을 위한 순간. 텔라린은 복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는 믿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정의였다.

목이 찢어져라 전투의 함성을 지르며 나무에 숨어 있던 엘프들이 사랑하는 산도와 함께 전투에 돌입했다.

온화하고 방어적인 산도는 사라졌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산도, 표범을 닮은 발로 풀마저 상하지 않을 것처럼 너무나 가볍게 움직이던 산도는 사라지고, 분노하는 자연의 화신이 서 있었다. 말퓨리온의 몸도 더 커진 것 같았다. 말퓨리온은 사방으로 달아나는 호드 머리 위로 우뚝 솟은 듯 보였다. 그 앞에서는 타우렌마저 약하고 가냘프게 보였다. 텔라린은 잔인한 기쁨에, 승리와 사울팽의 죽음에 대한 예감에 몸을 떨었다.

매복 공격을 당한 호드는 완전히 혼비백산했고 전열을 재정비하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쉬운 먹잇감이 되어졌다. 적의 압도적인 수에 밀려 사면초가에 빠졌던 칼도레이였지만, 이 순간만은 수적인 차이도 무의미했다.

텔라린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도 보지 않고 연달아 시위를 당기고 또 당겼다. 일곱 명의 호드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화살을 눈과 목에 꽂은 채 쓰러졌다. 호드 무리에 뛰어든 드루이드들은 먹이를 찾는 야수처럼 날뛰었으며 전사들은... 두 손에 칼을 들고 단숨에 적을 베어 목을 날리고 갑옷을 뚫었다. 파리 떼처럼 호드가 나가떨어졌다.

말퓨리온은 사울팽을 쫓아 여관으로 들어갔다. 여관 안에서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사울팽의 악에 반친 함성이 함께 터져 나왔다. 텔라린은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만, 막고라라는 말은 희미하게나마 알아들었다. 늙은 오크가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에게 명예로운 결투를 신청한 것이다.

실소가 나올 상황이었다. 다르나서스를 구하고 나면 페린과 함께 포도주를 기울이며 이 일로 웃게 되리라.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죽어야 했다.

도전에 대한 말퓨리온의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우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땅에서 뿌리가 솟아 나와 축수처럼 여관의 단단한 돌벽을 휘감고 무너뜨리는 모습은 눈에 들어왔다. 귀가 먹을 것 같은 굉음에 그때까지 용감하던 호드 전사가 주춤거렸다.

그들이 치를 대가였다. 더 많은 호드가 칼도레이 앞에 쓰러졌다.

사울팽이 있는 여관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엘룬은 위대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텔라린은 몸이 심하게 떨렸다. 시간보다 오래된 어떤 감각이 텔라린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팔의 털이 다시 곤두섰다. 말퓨리온의 존재, 신과 같은 자연의 힘 때문이 아닌, 뭔가 다른, 뭔가 뒤틀리고 잘못된, 부자연스러운 존재 때문이었다.

화살 한 발이 뱀처럼 구불구불 불길한 보라색 연기 궤적을 남기며 텔라린의 뺨을 스치듯 지나갔다. 텔라린을 노린 화살이 아니었다. 몇 미터 밖, 얼굴 앞에 교차한 말퓨리온의 팔 위로 줄무늬 화살 깃이 여봐라는 듯 부르르 떨리더니 폭발했다. 말퓨리온이 에메랄드의 녹색 빛에 휩싸였다. 자연의 색, 칼도레이 저항의 색이었다.

“안 돼!” 격렬한 고통과 거부의 비명이 델라린의 목에서 터져 나왔다. ‘성공할 뻔했는데! 여기서 끝낼 수 있었다고!’

그녀의 비명이 뱀시 여왕의 주의를 끌었다. 실바나스는 이미 두 번째 화살을 재고 시위를 놓으려는 순간이었지만, 동작을 멈추고 델라린에게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다시 땅이 진동했고 남아 있던 여관이 무너졌다.

번뜩이는 붉은 눈이 델라린의 눈과 마주쳤다. 어두운 색깔의 입술에 가학적인 미소가 어렸다. 실바나스의 시선이 화살이 되어 델라린을 꿰뚫는 듯했다. 다음 순간,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더 가치 있는 상대에게 주의를 돌렸다.

델라린은 다행이라고 느껴야 했다. 실바나스의 시선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하지만, 도전의 함성과 함께 말퓨리온의 녹색으로 빛나는 생명의 마력이 실바나스가 내뿜는 황량한 죽음의 기운과 충돌하는 모습에서 델라린이 느낀 감정은 비통함과 차디찬 한기뿐이었다.

호드에게서 격렬한 환호가 터져 나왔다. 말퓨리온의 존재에 혼비백산하고 대군주 위로 무너지는 여관을 보며 충격에 빠졌던 호드였지만, 대족장이 나타나자 분노가 새롭게 차오르며 공포를 밀어냈다.

말퓨리온은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델라린에게 할 일을 일러줬다. ‘엘룬께서 허락하신다면 실바나스가 도착하기 전에 사울팽을 죽이고 호드 군대의 사기를 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북쪽으로 후퇴하라. 몸을 뺄 수 있다면 나는 잿빛 골짜기와 어둠해안 경계에서 합류하겠다.’

북쪽으로 후퇴하여 페탈라스의 함대가 말퓨리온의 전언을 받고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거의 다 됐었는데.’

델라린은 뿔나팔을 들어 올려 퇴각 신호를 불었다.

희생을 치르기는 했지만, 호드에게 아스트라나르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에 그나마 나은 곳이었다. 그러나, 한쪽은 바다가 다른 한쪽은 험준한 산맥이 막고 있는 잿빛 골짜기 북쪽 지역은 나이트 엘프에게 훨씬 친숙한 환경이었다. 호드가 전쟁의 보상을 얻으려면 아주 좁은 숲길을 뚫고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호드가 어찌면 짐작도 못 했을, 나이트 엘프의 지원군도 있었다.



칼도레이의 습격이 중단되자 호드는 놀랍도록 쾌적하게 젓빛 골짜기 북서쪽 지역을 행군할 수 있었다. 호드는 승리의 맛을 봤고 그 힘을 빌려 진군 속도를 높였다.

텔라린은 생각했다. ‘아직 승리의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호드. 우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약속대로 말퓨리온은 북쪽 경계에서 텔라린의 부대와 합류했다. 말퓨리온에 이어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여겼던 에리아드나르도 합류했다. 에리아드나르를 부둥켜안으며 텔라린은 엘룬께 감사드렸다. 페린이 나무 위의 암살자를 처치했던 끔찍한 순간 이후 급격하게 수가 줄어든 텔라린의 부대와 함께 에리아드나르와 대드루이드, 텔라린은 기다렸다. 나이트 엘프는 긴 삶을 부여받은 존재답게 인내로 증오와 욕망의 균형을 잡았다.

텔라린은 적을 정찰하고 미행하기 위해 남쪽으로 파견되었다. 호드는 나이트 엘프가 모험하지 않을 것을 알고 탁 트인 조람가르 전초기지 근처 해변에 야영지를 설치했다. 덩치 큰 트롤과 타우렌, 오크 가운데 호리호리한 대족장이 보였고 말퓨리온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울팽도 모습을 드러내 텔라린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너무 멀어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울팽이 소리치자 여러 명의 병사가 그 앞으로 모여들었다. 사울팽은 자원자를 모집 중이었다. 칼과 갑옷으로 무장한 호드 보병 백여 명이 해변에서 나와 숲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계속 오너라, 사울팽. 우리는 준비가 됐다. 네놈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텔라린은 뛰어난 적을 존중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렇지만, 계속 잠잠한 나이트 엘프 앞에 차츰차츰 긴장이 고조되는 호드의 모습을 몇 시간 동안 몸을 숨기고 지켜보면서 격렬한 기쁨을 느끼지 않기는 힘들었다. 때로 인내는 달다.

‘야외극’, 말퓨리온의 지시에 쓰여 있던 말이다. 당시 텔라린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들은 환상과 부분적 진실과 수수께끼로 가득 찬 공연을 상연하려는 중이었다.

그래서 텔라린은 기다렸다. 숲속에는 환영이 있었다. 빛나는 허상의 구체가 공중을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눈에는 단순히 예쁘고 조금 매력적인 빛으로만 보이겠지만, 아는 이들은 존중과 경외감, 감사 그리고... 공포로 바라보는 존재, 바로 사랑하는 칼도레이 망자의 영혼, 위습이었다. 잠깐 텔라린은 오늘 저 위습 무리에 누가 합류했는지, 그들 중 페린이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몰아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길 여유가 없었다.

위습 몇이 날아들자 한 트롤이 손가락이 세 개 달린 손을 휘저었다. 한 타우렌은 칼도레이 머리만 한 불빛이 마치 웅웅대는 파리라도 되는 듯 꼬리를 휘두르고 귀를 찔룩거렸다.

‘멍청한 것들.’ 텔라린은 생각했다. ‘계속 오너라...’

사울팽이 위험을 알아차리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그르렁대는 추잡한 오크어로 사울팽이 퇴각을 명령했다. 공포가 깃든 목소리였다.

당연했다. 수가 적은 경우, 망자의 영혼은 해롭지 않았다. 하지만, 수가 많으면 위습은 악마 군주라도 쓰러뜨릴 수 있었고 실제로 쓰러뜨렸다.

그리고 지금은... 말퓨리온 스톱레이지가 이번 드라마의 주연들을 무대 위로 호출했다. 말퓨리온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멀리 퍼져나갔다. “애쉬 카라스.” 말퓨리온이 외쳤다. ‘공격하라!’

영혼들에게 명령하는 동시에 호드를 도발하는 말이었다. 호드는 최대한 빨리 퇴각했다. 적어도 사울팽의 말을 들은 현명한 자들은 그랬다.

위습이 산도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숲의 어둠을 밝혔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그림자 속에 발을 들이민 모든 호드가 뒤늦게나마 알게 됐다. 위습이 단단한 빛의 장막이 되어 너무 멍청하거나 너무 당황하여 자신들의 지휘관과 함께 도망치지 않은 호드를 덮쳐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조용하지는 않았다. 숲이 고통의 비명으로 진동했다. 텔라린은 즐겁게 그 노래를 들었다.

남은 호드 병사들은 미친 듯이 도망쳤다. 헛된 몸부림이었다. 거대한 무기들로 무장한 오크 하나가 뱀처럼 뻗어 나온 뿌리에 발이 잡혀 바닥에 세계 넘어지자 하얗고 뿜어대는 구름이 넘어진 오크를 덮쳤다. 잠시 후, 구름이 떠오르며 위습의 분노를 받을 다음 희생자를 향해 흘러갔다. 구름이 떠난 자리에는 새카맣게 탄 뼈만 남았고 가끔은 재밖에 남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나에게 오라!” 산도가 외쳤다.

이제 엘프들에게 삶과 죽음의 연극에 참여하라는 신호가 떨어졌다. 엘프들이 숨어 있던 덤불 속에서 또는 나뭇가지에서 튀어나와 자신들의 지도자와 함께 적을 쫓아 달렸다. 위습이 화난 듯 뿜어대며 왔던 길로 도망치는 호드를 괴롭혔다.

텔라린은 대군주와 함께 움직인 병력을 대략 백여 명으로 추산했었다. 그중 십여 명 정도의 소수만 조람가르 전초기지 근처 해변으로 살아 돌아갔다. 나머지는 위습 무리에 파괴되었다.

나이트 엘프 병사들이 숲 경계에 다다르자 말퓨리온이 큰 소리로 멈추라고 명령했다. 말퓨리온이 탄탄한 근육질 팔을 빛의 무리 속으로 들어 올리자 위습들이 날아들어 벽을 형성하여 살아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숨겨줬다.

잠시 후, 소리 없는 명령에 위습의 벽이 흩어지며 장막처럼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말퓨리온의 명령에 따라 수가 더 많아 보이도록 늘어선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그 뒤에 머리 하나 정도 솟아 있는 말퓨리온 스톱레이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 주위로 나뭇가지가 지금은 비어버린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다.

“물러가라.” 깊고 낭랑한 말퓨리온의 목소리가 침묵을 뚫고 해변에 모인 호드에게 흘러갔다. “우리 땅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리라. 이것이 내 맹세다.”

살아있는 빛의 커튼이 다시 드리웠다.

야외극이었다.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는 호드에게 달렸다.

약간 지치기는 했지만, 텔라린의 입에 미소가 어렸다. “산도, 이 작전이 통할 줄 어떻게 아셨죠?”

말퓨리온이 미소지었다. 보통 말퓨리온의 미소는 다정해 보였지만, 지금의 미소는 사나웠다. 말퓨리온은 자신의 호출에 화답해준 빛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공포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 말퓨리온은 결의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호드는 강력하고 영리하다. 하지만, 많은 호드가 미신을 믿는다. 나는 위습이 저들을 파괴할 뿐 아니라 도망간 자들을 두렵게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들이 호드 군대에 공포를 퍼뜨릴 것이라고. 저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위습과 화살, 숲의 분노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말퓨리온의 시선이 자신을 올려보는 얼굴들 위에 머물렀다. “이곳은 우리 땅이다. 우리 고향이지. 저들은 패배한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마지막 하나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저항할 것이다. 최대한...”

대드루이드는 말을 멈추고 무언가 느낀 듯 하늘을 쳐다봤다. 텔라린도 하늘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곧 폭풍까마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폭풍까마귀는 산도에게 날아가 칼도레이 여성의 모습을 하더니 대드루이드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기가 두려웠는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위대한 산도, 저는 산드리스 페더문 장군의 배에서 온 전령입니다. 함대가 도착했습니다!”

“엘룬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말퓨리온이 외쳤고 환성이 터져 나왔다. 포성이 울리며 젊은 드루이드의 말을 확인시켜줬다. 빛나는 위습의 장막에 가려 함대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흥분으로 텔라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칼도레이의 함포가 내는 굉음 사이로 텔라린과 다른 나이트 엘프들은 희미하게 사울팽이 퇴각을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함대가 도착한 이상 호드가 해변에 공성 병기를 배치할 방법은 없었다. 그랬다가는 거대한 무기가 거대한 불쏘시개가 될 뿐이었다.

지금 호드군은 분노한 엘프의 영혼과 강력한 엘프 전함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수가 많은 만큼 아직 승리할 길은 있었지만, 그러려면 단계적으로 위습을 밀어내야 했고 그 길은 시체로 포장될 터였다. 당연히 진군은 느릴 것이고 그동안 함포가 그들의 머리 위에 불비를 쏟아낼 것이다. 포위를 벗어나는 데 몇 주는 걸릴 테고 그사이, 며칠 전에 출발한 얼라이언스 지원군이 도착할 것이다.

‘이길 수 있어.’ 제시의 힘에 전율하며 텔라린은 생각했다



환한 표정으로 테샤라가 산드리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산드리스와 선원들은 반가운 위습의 빛이 어른거리는 모습을 이미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산드리스의 함대는 호드군을 편안한 해변 주둔지에서 말퓨리온 스톱레이지가 기다리는 숲 경계까지 밀어냈다.

“산도계서 고향 땅을 지키도록 위습을 불렀습니다. 저희 병력은 줄었지만, 생존자들은 텔드랏실로 가는 길을 싸워서 막고 있습니다. 적이 달아날 곳은 없습니다.”

젊은 엘프답게 확신에 찬 말이었지만, 코드레사는 그 말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코드레사는 새로운 희망에 찬 젊은 엘프를 웬지 놀려주고 싶었다. “오, 그래. 그래야죠. 놈들은 꼬리를 말고 자기들 집으로 도망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호드예젠 퇴각하는 길 말고는 사방이 죽음의 길이었다. 서쪽은 함대의 포격이, 북쪽으로 가는 길은 말퓨리온과 칼도레이 병사들과 칼도레이의 영혼이, 동쪽은 악령숲과 넘을 수 없는 산이 막고 있었다.

산드리스가 망원경을 내리며 경고하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아직 해안을 따라 진군할 길이 있습니다. 위습에게 맞을 수 있어 포격 거리를 늘리기 힘드니까요.”

테사라는 의기소침했지만, 코드레사는 패기만만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포위하고 있잖아요. 놈들이 퇴각하지 않는 한에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스톰윈드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놈들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테사라가 물었다. “지금 공격하면 안 됩니까? 해변에서 말입니다.”

“함대가 모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모두 도착한다 해도 난전을 벌여 승부를 결정 내기에는 수가 부족합니다. 안 돼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해요. 놈들이 우리를 포격하려 하면 우린 놈들의 공성 무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코드레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틈틈이 놈들에게 포탄을 날려줘야겠죠.”



배 위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잠을 자는 선원도 있었고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선원도 있었다. 황혼이 하늘을 물들이더니, 해질녘이 됐다. 테사라가 정찰 비행에서 돌아와 수백 명의 호드 병사가 악령숲의 산맥을 지나 어둠해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출발했다고 보고했다. 너무 빠른 움직임에 산드리스는 껄껄 웃었다.

“놈들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코드레사가 동의했다. “걱정할 호드 놈들이 줄어들겠군요.”

잠시 후, 젊은 드루이드가 지루하다고 불평하자 코드레사가 웃었다. 그건 감사할 일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드루이드의 짧은 녹색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모두 행동할 준비는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와서 기회만 기다리자니 쉽지 않았다.

조만간 모두 소원을 이룰 것이다.

호드가 공성 병기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선원들이 달려들어 거대 무기에 포격을 시작했다. 첫 일제 사격에 몇 대의 공성 전차가 파괴되었지만, 나머지는...

공성 병기에서 전함에 발사한 것은 바윗덩어리가 아니었다. 포격 대상을 거의 즉시 불태워버리는 불안정한 비전 마법이 주입된 화염이었다. 해변에 가장 가까이 있던 함선들이 먼저 당했다. 코드레사는 첫 번째 배가 불타오르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공포를 느꼈다.

“공성 병기를 계속 겨냥해라!” 산드리스가 명령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칼도레이 전함이 기이할 정도로 치명적인 포탄을 발사하는 공성 병기를 파괴하기 위해 포탄과 글레이브를 쏟아부었다.

화염 웅덩이가 물 위에 퍼지며 다른 표적을 찾아갔다. 세 척, 아니 이제 네 척이 전소됐다. 불타는 함선의 선원들이 물로 뛰어들어 미친 듯이 아직 멀쩡한 함선을 향해 헤엄쳤다.

뭔가 코드레사의 눈에 잡혔다. 물 위에서 나이트 엘프의 모습과 다른 형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오크였다. 무슨 미친 짓을...

다음 순간 깨달았다. “호드가 배에 오르려 한다!” 코드레사는 소리쳤다.

“포격을 계속하라!” 산드리스가 외쳤다. 둘 다 활시위를 당기며 물살을 가르며 호드 머리를 노리고 사격을 시작했다.

단 몇 분 만에 함대를 지배했던 나쁜 기운이 날아가고 혼돈만 남았다. 완벽하게 안전하던 배 위로 지옥이 강림한 것이다.

한 척의 배가 또 불길을 내뿜으며 폭발했다. 코드레사는 연신 활시위를 당겼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신인지 로아인지 호드의 조상들인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호드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말퓨리온의 계획은 성공했어야 했다. 하지만, 위습은 군집을 이루지 못하면 빗방울만큼이나 무해했다. 산을 넘는 것은 불가능했다. 호드는 산을 넘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 그렇게 오래 살았던 나이트 엘프도 몰랐던 길을 호드는 어떻게 찾아냈을까?

이제 전방과 후방 두 곳에 전선이 형성되었다. 위습은 흠뻑 젖고... 살해당했다.

말퓨리온은 그녀를 느꼈다. 가까웠다. 그동안 밴시 여왕과 술래잡기를 벌였지만, 이제 도망치는 것도 끝이었다.

이렇게 될 일이었다. 스톰윈드 지원 함대가 도착하는 것도, 위습이 적을 파괴하는 것도 아닌, 혼돈 속에서, 논리적으로 틀림없이 작동했어야 할 함정이 거꾸로 엘프에게 칼끝을 돌리며 끝나게 됐다.

말퓨리온은 생각했다. ‘이제 우리가 포위됐다. 나는 저들을 구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재앙을 최소화하는 것뿐이다.’

서신을 쓸 시간이 없었지만, 쓰지 않을 수도 없었다. 젊은 드루이드 테사라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건네받았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말퓨리온이 말했다. “다르나서스로 가거라. 가서 차원문을 통해 스톰윈드로 보내달라고 해라. 여왕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거라.”

“저도 싸우겠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나와 나이트 엘프를 가장 잘 섬기는 것이다.” 이 아이와 언쟁할 시간이 없었다. 세계수를 되찾는 전투는 이 아이가 자신이 내뱉은 말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지독할 것이다.

테사라가 결심한 듯 한쪽 무릎을 꿇었다. “모시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산도.” 테사라는 목이 잠긴 소리로 말하더니 휘청이며 일어나 위로 뛰어오르며 폭풍까마귀로 모습을 바꿨다.

텔라린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텔라린의 갑옷에 피가 점점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피는 아니었다.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대드루이드는 얼굴을 들어 폭풍까마귀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바나스가 또 날 찾는군. 이번에는 내가 먼저 찾아가야겠어. 그리고 엘룬께서 허락하는 한 그녀를 막겠다.”

텔라린은 용감한 이였으며 필요할 때는 스스로 판단하면서도 한결같이 말퓨리온의 명령을 따랐다. 강하고 신념이 확고한 파수꾼이었다. 텔라린과 텔라린의 부대는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며 열심히 싸웠다. 하지만, 호드 군대는 너무 많았다. 단순한 병사의 숫자만으로 칼도레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무력화시켰다.

숫자, 사울팽의 전략... 그리고 어둠 여왕의 의지가.

텔라린의 뺨에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퓨리온이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줬다. 텔라린은 말퓨리온의 포근하고 커다란 손에 뺨을 맡기더니 잠시 후 숨을 크게 들이켰다. 텔라린은 알았다. 호드가 다르나서스를 점령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의 싸움은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산도.” 텔라린이 조용하게 말했다.

‘정말 용감하군. 모두가 정말 용감해.’ 말퓨리온은 생각했다.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 생명뿐이로군.’

말퓨리온이 대답했다. “부대를 이끌고 안개 해안으로 가라, 사령관. 도착하거든...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말퓨리온이 잠시 말을 멈췄다. “서머문 사령관... 지금껏 잘해 주었다. 엘룬께서 그대와 함께하기를.”

텔라린은 몸을 바로 세우고 절도있게 경례한 뒤 달려갔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는 모습을 바꿨다. 수사슴 뿔이 사라지고 바위 위와 풀밭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발굽이 나타났다. 말퓨리온은 어둠의 힘이 담긴 활시위가 대기를 흔드는 추잡한 소리를 따라 달렸다. 실바나스를 죽여도 도시는 함락되겠지만, 호드가 혼란에 빠져 도시를 되찾기는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짓을 저지른 실바나스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말퓨리온은 수사슴에서 다시 엘프로 모습을 바꾸고 바위와 뿌리, 땅, 나뭇잎에 명령을 전하고 기다렸다. 말퓨리온의 존재를 느낀 실바나스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생전과 마찬가지로 우아한 실바나스를 본 말퓨리온은 분노보다는 이 땅과 동족에게 닥친 시련에 슬퍼했다. 심지어는 실바나스 윈드러너의 운명에도 슬퍼했다.

“이번에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실바나스.”

“나도 안다.”



안두인은 자신이 이번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로운 공포와 함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영혼을 쥐어짜는 고통에는 누구도 준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난민들은 끊임없이 몰려왔다. 안두인이 도시 전역에 차원문을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명령했지만, 굶주리고 겹먹은 피난민처럼 마법사도 음식을 먹고 잠을 자야 했다. 대성당은 이미 피난민으로 넘쳐났고 사제들은 스톱윈드 전역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 안두인은 왕실 금고를 열어 담요와 잠자리, 음식을 조달했고 심지어 일반 시민들도 문을 열고 따뜻하게 피난민을 맞아들였다.

안두인은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했다. 벨렌은 상황에 따라 하늘안개 섬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 뒀지만, 호드는 다르나서스에만 집착하는 것 같았고 드레나이는 아직 위험하지 않았다.

짧은 녹색 머리를 한 다소 젊은 칼도레이 드루이드가 차원문을 나오자마자 두 통의 편지를 들이밀며 겐과 티란데에게 즉시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즉시 안두인과 겐, 벨렌과 함께 부상자들을 돌보던 대여사제에게 안내되었다. 전령은 편지 하나를 겐에게 전했고 겐은 그녀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본 뒤 편지를 읽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티란데가 몸을 일으키고 돌아서자 드루이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드루이드는 티란데에게 편지를 건네고 더듬더듬 다르나서스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편지를 읽는 대여사제의 얼굴이 곧 쓰러질 것처럼 창백해졌다. ‘안 돼.’ 안두인은 생각했다. ‘제발, 빛이여...’

자신도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도 티란데는 팔을 들어 올려 슬퍼하는 소녀의 눈물을 닦아 줬다.

안두인이 물었다. “티란데 님, 무슨 일이죠?”

대여사제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말퓨리온 스톱레이지가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피난민들이 놀라 숨을 삼켰고 몇 명이 울기 시작했다. 벨렌과 겐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안두인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티란데가 소녀를 안은 채 으스스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호드가 그이와 병사들을 후방에서 공격했고 위습은 흩어졌습니다. 그이는 지금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점령되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탈출할 수 있도록 전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티란데가 경직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이와 함께해야겠습니다.”

안두인이 말했다. “안 됩니다, 티란데 님.”

티란데가 고개를 획 돌려 안두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깜짝 놀란 소녀가 뒤로 물러섰다.

“진심으로 제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티란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안두인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티란데 님이 떠나시면 나이트 엘프는 지도자도 없이 여기 남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안두인은 대성당에 가득한 수백의 나이트 엘프를 가리켰다. “겐 님과 벨렌 님, 그리고 제가 이미 칼도레이에게 세계수를 되찾아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지금 가시면 고작 몇 시간을 벌고 죽는 것입니다. 살아 계셔야 저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습니다.”

티란데는 말없이 몸을 더 꼳꼳이 세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기어이 가려는 건가?” 겐의 말이었다. 티란데가 고개를 끄덕였다. 겐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서 미아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해주게.”

겐의 무뚝뚝한 말에 잠깐이나마 티란데의 입술에 미소가 어렸다.

안두인은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달리 도울 방법을 생각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와 자주 다뤘습니다. 그걸 보고 제이나가 이걸 제게 줬습니다. 덕분에 가끔 왕궁을 몰래 벗어날 수 있었죠.”

안두인이 외투에 손을 넣어 작은 돌을 하나 꺼냈다. 납작한 회색 돌이었는데 푸른 빛이 안쪽에서 소용돌이치며 반짝였다. “귀환석입니다. 이걸 사용해 테라모어로 가서 제이나를 만나고는 했죠.” 안두인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씩씩하면서도 달콤한 추억이었다. “그 이후 귀환석의 목적지를 스톰윈드로 조정했습니다.”

안두인이 티란데에게 돌을 내밀었다. “받으세요. 살아남으십시오. 말퓨리온 님을 찾아 돌아오십시오. 그런 다음, 두 분이 함께 나이트 엘프를 이끌고 세계수를 되찾으세요. 스톰윈드가 함께할 것입니다.”

티란데는 잠시 귀환석을 바라보더니 손을 뻗었다. 티란데 위스퍼윈드가 안두인에게 희미하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하겠어요, 안두인 린 국왕이여. 지금 이 순간이 다르나서스 탈환 전쟁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티란데는 고개를 숙여 안두인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다르나서스로 연결된 차원문으로 들어갔다.

소란통에 티란데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트 엘프들은 도시를 탈출할 유일한 수단인 차원문 앞에 뻘뻘히 늘어서 있었고 떨리는 팔로 차원문을 유지하는 마법사들은 지친 모습이었으며 군중들을 질서 있게 통과시키려 애쓰는 여사제들도 모두 지쳐 있었다. 여러 명의 칼도레이가 달샘에 모여 엘룬께 안전을 기원하고 있었다. 어른들의 기분에 민감한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부모들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대여사제를 알아본 엘프들이 환성을 질렀다.

“티란데 님!” 나이트 엘프 여성이 군중을 뚫고 나오려 애쓰며 울음을 터뜨렸다.

“대여사제님!” 다른 사람들도 외쳤다.

“무슨 일인가요?”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며 한 여성이 어깨로 군중을 헤치고 티란데 옆으로 나왔다. 티란데는 미아 그레이메인을 쳐다봤다. 여왕은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이 커지더니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살짝 몸을 떨었다. 대여사제가 미아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숙였다. “호드가 위습을 물리쳤다고 들었습니다. 파수꾼은 모두 죽었고 호드가 비전의 불로 세계수를 태워버리려고 온다는 얘기를요.”

티란데가 대답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호드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말을 입 밖에 내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호드가 다르나서스를 점령할 것입니다.”

미아가 놀란 숨을 삼키더니 바로 어깨를 똑바로 펴고 고개를 끄덕였다. “대피를 도우려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본 티란데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말퓨리온이 실바나스와 대적하러 갔습니다. 그이를 도와야 합니다. 말퓨리온이 전투에서 이기면 호드의 사기가 크게 꺾일 것입니다. 잘하면 군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민이 탈출할 수 있어요.” 티란데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대의 남편에게 돌아가세요, 미아 여왕.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차원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젠이야 인내심을 좀 더 기르라고 하지요. 가십시오. 저는 계속 여사제들과 시민들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미아 여왕은 달샘을 두른 돌 위에 올라섰다. “다르나서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대여사제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전투 중인 말퓨리온 스톱레이지님을 도우러 가십시오!”

군중들은 말없이 길을 내줬다.

티란데는 그 길을 걸으며 팔을 들어 올려 엘룬의 축복을 빌었다. 곧 주어질 짐을 짊어지려면 사람들에게는 힘과 용기와 희망이 필요했다. 티란데가 외쳤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분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말퓨리온과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여 남게 되시는 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텔드랏실이 호드의 손에 떨어져도 얼라이언스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칼도레이입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는 티란데에게 환성을 질렀다. 티란데는 자신의 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밤이었다. 히포그리프 등 위에서 티란데는 수백의 나이트 엘프가 세계수에서 도시로 쏟아져 나와 창백한 하얀색 돌로 포장된 거리와 녹색의 잔디를 가득 메우며 다르나서스를 향해 달아나는 음울한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생명체가 날개를 저어 앞으로 나아갈수록 티란데의 가슴은 점점 더 무너져내렸다.

그녀의 아래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리더스로 향했던 함대의 함선 여러 척이 빨갭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른 칼도레이 함선은 퇴각했고 아직 무사했다. 전투는 안개 해안으로 옮겨갔다. 언제나 아름답고 반갑던 달빛이 잔인하게 전장의 참상을 드러내고 세계수를 노리는 무시무시한 수의 공성 병기에 차가운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해변에는 아직 많은 수의 엘프가 남아 있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간절히 티란데는 히포그리프의 기수를 아래로 내리고 싶었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적과 싸우는 용감한 칼도레이 전사들의 옆에서 싸우다 죽고 싶었다. 안두인이 옳았다. 지도자도 없이 나이트 엘프를 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티란데와 말퓨리온이 필요했다.

“절 용서하세요.” 티란데는 차가운 밤공기보다 더 차가운 죄책감에 몸을 떨며 칼도레이 병사들을 향해 속삭였다.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티란데는 중요스러운 어둠의 여왕과 말퓨리온이 싸우는 곳을 찾아 내륙으로 눈을 돌렸다. 빨리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 있을까? 천년의 지혜와 인내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도 광대한 숲에 있는 하나의 존재를 찾기에는 부족했다. 모두를 실망시키게 될까?

눈물에 시야가 흐려졌다. 티란데는 얼굴을 들어 올려 달을 눈에 담았다. ‘엘룬이시여.’ 슬픔으로 터질듯한 가슴을 안고 티란데는 기도했다. ‘길을 비춰 주소서.’

“엘룬의 빛이 그대와 함께하길.” 나이트 엘프가 자주 하는 축복의 말이다. 다정한 작별의 인사이자 친구에게든 낯선 이에게든 성공을 기원하며 건네는 축복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티란데는 진심으로 엘룬의 빛을 간청했다. 기적이 필요했다. 고향에서 쫓겨나 의기소침하고 겁에 질리고 기댈 곳은 동맹의 친절밖에 없는 나이트 엘프에게 희망이 필요했다.

티란데가 놀란 숨을 삼켰다.

여신께서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다.

달빛 기둥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내려와 잠시나마 울창한 숲 지붕을 뚫고 숲 아래를 비추었다.

저기다. 티란데의 사랑, 나이트 엘프의 마지막 희망이 저기 있었다.

엘룬께서 티란데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감사합니다.” 티란데가 히포그리프를 아래로 몰며, 너무 늦지 않았기를 기원하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티란데의 앞쪽 숲 바닥에 그녀의 사랑이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 말퓨리온의 피가 달빛에 번득였고 그 앞에 대군주 바로크 사울팽이 도끼를 들어 올린 채 서 있었다.

티란데가 울부짖으며 히포그리프에서 뛰어내렸다. 하얗게 타오르는 엘룬의 빛이 폭발했고 등을 돌리고 있던 사울팽은 티란데의 주문에 잡혀 석상처럼 그 자리에 붙박였다. 티란데는 땅에 발이 닿자마자 한 손을 앞쪽으로 강하게 들어 올려 마비된 사울팽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 뒤 한쪽으로 내동댕이쳤다. 사울팽은 땅에 강하게 부딪혔지만 죽지는 않았다.

사울팽이 올라다보았을 때 티란데는 말퓨리온 앞에 우뚝 서 있었다. 티란데가 소환한 빛이 치명적인 광휘의 창이 되어 사울팽의 하얗게 센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팽은 밝은 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혈떡였지만, 공격하려는 기색은 없었다.

‘생각만으로 놈을 꼬챙이로 만들 수 있는데 자비를 구하기는커녕 날 바라보고만 있다니.’ 티란데가 끼어들기 전, 사울팽은 그 도끼로 말퓨리온의 목숨을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일까?

티란데는 사울팽에게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말퓨리온에게 한쪽 손을 가져갔다. 실바나스의 어둠이 대드루이드의 몸에 남긴 추악한 흔적은 보았지만, 손으로 만져지는 상처는 보기보다 끔찍했다. 말퓨리온의 상처에서 샘솟는 피로 손이 온통 잠길 지경이었다. 티란데는 심장이 갈가리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엘룬이시여 이이를 치료해 주소서. 그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일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다시 한번, 여신의 빛이 티란데의 부름에 응했다. 언제나처럼 찬란한 빛의 기둥이 이번에는 말퓨리온의 몸을 중심으로 모였다. 장엄한 치유의 에너지가 말퓨리온의 몸을 눈부시게 빛내며 서서히 흡수됐다. 티란데는 피에 젖은 손 아래에서 말퓨리온의 뼈가 이어지고 상처가 아물고 위대한 심장이 맥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티란데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일어나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자를 마주 봤다. 사울팽은 현명하게도 움직이지 않았다. 빛의 창은 티란데의 명령을 기다리며 여전히 사울팽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다.

티란데가 말했다. “죽이지 않았군. 왜지?”

사울팽은 갈색 눈으로 티란데를 잠시 살피듯이 바라본 뒤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조용하게 대답했다. “명예롭지 못한 습격이었으니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듯 사울팽은 거의 상처 입은 표정이었다. “내겐 그럴 자격이 없다.”

분노에 몸을 떨며 티란데는 바위같이 단단하고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전쟁 자체에 명예 따윈 없다.” 티란데는 겁에 질려 떨던 피난민들을, 해변을 덮고 있던 시체들을, 다르나서스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한 공성 전차들을 떠올렸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무고한 피를 이렇게나 많이 흘리게 하다니... 아무 의미도 없이!”

“해야 할 일이지 했을 뿐이다.” 사울팽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을 돌리지도 않았다. “승리해야 하기에 한 일이었다.”

엘룬 빛의 창이 티란데의 분노에 반응하여 무시무시한 빛을 발하며 치명적인 창끝을 사울팽의 목에 가져다 댔다. 티란데는 창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호드에게 명예라니. 하지만, 사울팽이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실은 믿었다. 수천 번의 전투를 겪은 전사이자 대군주인 사울팽은 말퓨리온의 숨을 끊지 않고 얼마나 오래 그렇게 서 있었을까?

호드는 다르나서스를 점령할 것이었다. 그때가 되면 명예를 믿는 장군, 티란데의 자비로 목숨을 건진 사울팽이 칼도레이 포로에게도 자비를 보여줄지 모른다.

그리고 너무 많은 생명이 죽었다. 티란데는 살인이 지긋지긋했다. 복수를 위해 그 위에 목숨을 더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울팽, 호드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우리는 고향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지도.”

티란데를 자극하여 이성을 잃도록 하려는 것일까? 티란데는 사울팽을 만족시켜줄 생각이 없었다.

“말퓨리온을 살려줬으니, 그대에게도 선택지를 주겠다. 내가 남편을 데려가지 못하게 방해하다 내게 죽든지... 그 흠바다에 무릎꿇은 채 목숨을 건지든지 선택하라.”

사울팽은 물려서지 않았다. “나도 선택지를 주지. 함께 다르나서스로 돌아가 우리가 그곳을 함락시킬 때 같이 죽든지... 아니면 어딘가 멀리 도망쳐 같이 살아남든지.”

둘 다 더는 말이 없었다.

티란데는 말퓨리온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말퓨리온은 편안하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난 것이다.

하지만, 둘은 고향을 잃었다. 사랑하는 남편 옆에서 실바나스 윈드러너와 대군주 사울팽에 맞서 싸웠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제 그 질문은 티란데를 평생 맴돌 것이다. 함께했다면 이겼을까? 아니면 삶에서 함께였던 것처럼 둘이 함께 피를 흘리며 죽어갔을까?

신전에서 티란데의 용감한 연설을 들은 이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오크와 트롤, 포세이큰과 타우렌, 고블린과 블러드 엘프가 세계수를 차지할 것이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사울팽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다. 티란데는 마지막으로 젓빛 골짜기의 커다란 나무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고향을 보았다.

‘용서하세요, 내 칼도레이여. 하지만,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맹세입니다.’

티란데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어 손에 딱 맞게 들어오는 작은 귀환석을 쥐었다. 선하고 진실한 젊은 영혼, 성실한 빛의 동맹으로 성장한 왕이 준 선물이었다. 티란데는 귀환석을 꺼내 잠시 생각에 잠겨 바라봤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스톰윈드로 돌아갔다.



매캐한 연기가 델라린의 목과 눈을 찔렀다. 세계수로 탈출할 수 있었던 나이트 엘프들은 어둠해안에 결집했다. 묵묵히 인내하던 그들도 마침내 아직 항해가 가능한 함선에 살려달라며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기에 이르렀다.

델라린은 함선이 멀어지는 이유를 이해했고 코드레사가 무사하기만을 기원했다. 호드는 치명적인 화염탄을 발사하는 공성 무기를 해변에 배치했다. 절망에 빠진 칼도레이를 구하러 다가왔다가는 해변에 다가오기도 전에 화염의 먹이가 될 것이다. 샀드리스 페터문은 현명하게도 퇴각을 결정했다. 살아남아 얼라이언스 지원군과 돌아와 혐오스러운 점령군에게서 세계수를 되찾기 위해. 하지만, 곧 포로가 될 이들에게는 이런 논리가 위안이 되지 않았다.

델라린 서머문은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녀의 임무는 싸우고 또 싸우고, 더는 싸울 수 없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었다.

전투의 흥분과 확고한 결의 덕분에 처음 몇 개의 화살은 무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살이 갑옷을 뚫고 박힐 때마다 조금씩 몸이 의지를 배신했다. 마지막 화살이 날아와 박혔을 때, 델라린은 잠시 비틀거리더니 무릎이 꺾이며 땅으로 쓰러졌다.

예정된 결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은 줄어들었다. “조금만 있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따뜻하고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페린이 즐겨 취하던 밤호랑이의 모습으로 델라린의 옆에 서 있었다. 델라린은 기뻐했다. 하지만, 곧 페린이 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할 수 없어야 맞는데. 밤호랑이의 입은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델라린이 실망하며 중얼거렸다.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야.”

죽어가고 있는 그녀의 마음이 위안을 주는 모습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생각에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다.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델라린은 알았다. 페린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도 마음은 평온했다. 곧, 페린과 함께할 테니까.

“쉬어.” 페린이 말했다.

델라린도 쉬고 싶었다. 하지만, 뭔가 잠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델라린은 안간힘을 써서 감기려는 눈꺼풀을 들어 올려 호드가 몰려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 설 수 없어.” 텔라린은 자신이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드럽고 잔인하고 슬픈 한 마디였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어.” 페린이 부드럽게, 다정하게 말했다.

그는 페린의 유령일까, 아니면 상상이 만들어 낸 허상일까?

무언가 다가왔다. 공포에 질린 동료들의 외침과 아직 불타오르는 함선의 비명과 공성 전차의 육중한 굉음 가운데에서 기이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명령을 내리는 허스키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해안을 확보하고, 나무를 칠 준비를 해라.”

‘실바나스.

말퓨리온 님이 실패하셨다.

그리고 나도.’ 텔라린은 절망에 몸서리치며 생각했다. 과거 하이 엘프이자 순찰대 사령관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민간인만 가득한 곳에 약탈과 복수에 눈이 먼 호드를 풀어놓기 직전이었다. 숲과 신록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이름을 지닌 실바나스를, 저 괴물을 저지할 엘프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인가?

텔라린은 아직 죽을 수 없었다. 동족의 모습을 했지만, 너무나 다른 저 여인에게 마지막 숨을 다해 닿기 전에는,

이해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었다.

‘엘룬이시여, 인도하소서. 그녀의 가슴에 닿을 한 마디를 찾을 수 있도록.’

실바나스는 텔라린을 보지 않았다. 죽어가는 파수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갔다.

텔라린이 말을 하기 위해 숨을 들이켰다. “어째서...”

대족장이 멈췄다.

5장:
대화재

나무에겐 나뭇잎 대신 불길
가지 대신 뼈들이
그리고 그 뿌리는
죽은 이의 재를 먹고 자라네
나무를 스치며 산들거리던 바람은 죽음의 외침이 되고
이 비가는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에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생명과 아름다움과 축복에
바치리라.

스톰윈드의 밤은 통제된 혼돈으로 복적였다. 겁에 질려 날뛰어도 이상하지 않을 대피 상황에서조차 나이트 엘프는 안전한 곳을 찾아 몰려든 다른 엘프를 밀치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더는 대성당에 피난민을 수용할 수 없었다. 심지어 방대한 지하 무덤의 구석까지 피난민으로 가득 찼다. 여관방마다 열 명에서 열다섯 명의 엘프가 머물고 있었다. 왕궁 일부까지 조용하고 침착한 칼도레이로 채워졌다. 피난민의 홍수는 도시 전역을 뒤덮고서도 모자라 영웅의 계곡을 지나 황금골까지 흘러넘쳤다.

말퓨리온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티란테는 말퓨리온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지만, 말퓨리온이 깊은 잠에 빠질 때면 마법사 탑의 차원문 앞을 떠나지 않는 안두인을 찾아가고는 했다.

마법사들은 차원문을 유지하느라 며칠이나 눈도 붙이지 못한 채 마법으로 만든 빵과 음료로 버티고 있었고 사제들은 그런 신비술사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내리고 있었다.

젠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뚝뚝한 젠이 하루하루 걱정으로 피폐해지는 모습을 안두인은 걱정하며 지켜봤다. 미아는 젠의 행동을 예상하고 너무나 기겁게 전령의 임무를 맡아주는 피난민을 통해 편지를 보냈다. 젠이 칼도레이의 존경을 받았다면, 미아는 그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피난민이 늘어나면서 편지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심각한 상처를 입은 말퓨리온을 티란테가 데리고 돌아와 안두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걸 들은 젠이 분노와 흥분으로 통제력을 잃고 늑대의 모습으로 변하다가 안간힘을 써서 변화를 멈춘 일도 있었다.

티란데가 켄에게 말했다. “미아는 차원문 가까이에 있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올 수 있어요.”
티란데가 다정하게 켄의 팔을 잡았다. “미아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켄이 내뱉듯 말했다. “여기서도 도움이 될 거네. 직접 가서 데려와야겠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미아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기가 뻔은
말을 실행에 옮길 것이었다. 안두인은 켄을 나무랄 수 없었다.

벨렌이 피난민이 들어오려면 마법사에게 공간을 내어줘야 한다며 마법사의 성소에서 켄을 데리고
나갔다. 켄과 벨렌은 이제 탑 아래 출구에서 엄청난 규모로 몰려오는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나이트 엘프들을
인도했다. 안두인은 미아가 도착하는 대로 걱정하며 기다리는 남편에게 바로 보내겠다고 켄에게 약속했다.

빨리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공성 병기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나이트 엘프로 가득 찬 루테란 마을의 항구가 첫 표적이었다. 포격에서 살아남은 엘프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목숨을 구하기는커녕 차가운 바닷물에 고통받으며 죽어갔다.

비전 마법이 주입된 포탄이 일반 나무의 몸통만 한 텔드랏실 가지를 날려버렸다. 불이 빠르게 번졌다.
어둠해안에서 주술사가 불러일으킨 바람이 불길을 키웠다. 사악한 임프처럼 춤추는 불꽃이 가지에서 가지로
 옮겨 가며 날름거리는 주홍빛 불길을 남겼다.

불이 위쪽으로 격렬하게 타오르며 사방으로 불꽃을 퍼뜨렸다. 알아메스 호수 표면에 비친 하늘은
검붉은 색이었다. 화재는 화마가 되어 북쪽으로는 돌라나르, 동쪽으로는 별바람 마을, 서쪽으로는 나무옹이
요새까지 번지더니

결국 다르나서스까지 이르렀다.

상인의 정원에 있는 목조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도 만족을 모르던 불은 도시의 심장인 달의
신전 돌과 물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다.

이어 신전 정원으로 불이 번지더니 결국 신전으로 드리워진 가지까지 불길에 휩싸였다.



나무와 살이 타는 끔찍한 냄새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미아의 육신을 강타했다. 미아는 매캐한
연기에 연신 기침을 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신전 안팎에서 나는 비명에 귀가 멍했다. 공포의 비명 너머
희미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미아 옆에는 아스타리와 라리아 그리고 다른 여사제가 공포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들은 미아보다 훨씬 감각이 예민했다. 차가운 손가락이 미아의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다. 미아는 그들이 가져온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다.

무지의 순간은 사라졌다. 신전 입구에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외쳤다. “적의 공격입니다! 세계수가 불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텔드랏실,

대지의 왕관.

지금까지 성소가 되었던 거대한 가지의 불빛이 물과 땅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던졌다.

‘이제... 너도 알겠지.’ 텔라린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전에 뱀시 여왕은 텔라린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그녀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지만, 어둠의 여왕은 틀렸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타오르는 불처럼 텔라린의 슬픔과 죄책감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불가해한 악의로 가득 찬 손을 뻗어 죽어가는 텔라린의 머리를 잡아 불타는 광경을 향하도록 만들었다. 텔라린이 지키기 위해 싸웠던, 믿었던, 피를 흘렸던,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위해 목숨을 잃을 모든 것들을.

생명의 나무는 이제 죽음의 함정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제로스 최대의 잣더미가 될 것이었다.

“눈을 감아.” 페린이 그렇게 말하며 텔라린 앞에 펼쳐진 지옥도를 가려주려 했다. 하지만 반투명한 유령의 형상으로는 광경이 그저 흐릿해질 뿐이었다.

‘눈을 감을 순 없어.’ 텔라린은 생각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텔라린은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똑똑히 봐야 해.’

지옥 같은 화마의 빛이 텔라린의 눈을 태워주는 것이 마지막 남은 자비이런만 잔인하게도 텔라린에게는 그런 위안마저 허용되지 않았다. 감각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극도로 예민해졌다. 들리지 않아야 할 어둠해안에 남아 있던 병사들의 비명과 뒤섞여 세계수의 가지가 타오르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열기에도 텔라린은 추위를 느꼈다.

‘죽음은 차갑구나. 저기 불타는 이들에게,

내가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렇겠지.’

페린이 너무나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증오도 두려움도 그만 내려놔. 모두 지난 일이야. 이제 나와 같이 가자.”

텔라린은 괴로움과 분노에 차 생각했다. ‘당신은 진짜가 아니야. 당신은 아쉬움의 그림자, 평화의 기약일 뿐이야.’

하지만, 평화는 없을 거야. 나에게는.’

나이트 엘프 드루이드의 유령이 사라졌다.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지만...

숲 위를, 타오르는 나무 위를, 세계의 모든 시련과 근심 위를, 두 개의 달이 지켜보고 있었다. 순백의 숙녀와 푸른 아이, 어머니와 아이, 엘룬과 그녀의 자녀들. 편안과 위안을 주던 밤하늘에서 다이아몬드를 닮은 별들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엘룬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불 속에 버려둘 수 있나요? 가진 것을 모두 바쳤는데도 부족했던 건가요?’

텔라린은 운이 좋았다. 화살에 맞아 죽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세계수 가치를 요람으로 삼았던 이들은 고통으로 죽어갈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제로스에 그 부끄러운 얼굴을 들이밀지 마세요, 엘룬.’ 생각에 날이 섰다. ‘당신은 우리를 버렸어. 그렇게 애썼는데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보호를 믿었는데...’

입은 바짝 마르고 몸은 너무 약해 경멸에 차 침 뱉을 수조차 없었다.

냉기가 심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와중에도 고통은 커져만 갔다.

‘조금만 있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사랑하던 사람의 유령이 장담했었다.

망각으로 건너가도 여전히 아플까?

답해줄 페린은 이제 없었다.



차원문을 통해 연기가 흘러들어오자 티란데 위스퍼윈드는 절망했다.

적어도 차분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흔들림 없이 다르나서스를 잡아먹고 있는 화마를 피해 차원문을 지나 마법사의 성소로 밀려들어 오는 나이트 엘프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어려 있었다.

“앞을 비워라! 공간이 필요하다, 당장!” 안두인이 소리쳤다.

스톰윈드 경비병들이 즉시 명령에 따라 나이트 엘프 아이들을 안고 부모들과 함께 탑 밖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를 달려 내려 갔다.

하지만, 공간을 더 확보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불은 너무 빨리 강하게 번졌다. 일반적인 불이 아니었다. 한 조각 동정심조차 남기지 않도록 뒤틀어놓은 마법의 악취를 맡으며 티란데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엘룬이시여, 제가 오만하게 운명을 시험했나요?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당신의 빛조차 넘어서 다르나서스를 태워버릴 정도인가요?’

칼도레이들이 절망적으로 밀치고 할퀴며 차원문에서 몰려나왔다. 티란데와 안두인, 스톰윈드 경비병들과 파수꾼들이 콜록거리는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경사로 쪽으로 인도했지만, 차원문은 끊임없이 피난민들을 쏟아놓았다. 매캐한 연기가 검어지고 짙어지며 점점 앞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티란데의 얼굴에 흑하고 연기가 밀어닥치며 자신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을 말려버렸다. 앞으로 나가려는 본능을 억제하고 티란데는 뒤로 물러나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렇게 긴급한 순간에 티란데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엘룬이시여... 저들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티란데의 주변에 있는 모든 피난민이 상처 입은 폐가 치유되면서 공기를 반갑게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연기가 매워서, 가슴이 아파서 아스타리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호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도대체 호드는 왜 세계수를 태우기로 했을까?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었다. 아스타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극도의 광기이자 학살이자 증오였다.

충격과 공포로 멍해진 그녀는 억지로 현재에 집중했다. 아직 차원문이 열려 있었다. 아직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아스타리는 소리쳤다. “모두 침착하세요! 차원문으로 한 번에 다 들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몇 명이 무작정 안전한 곳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지만, 대다수는 아스타리의 간청을 무시하고 계속 밀고 밀치고 있었다. 가족들이 신전에 밀고 들어오며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움직일 때마다 화상으로 검붉게 짓무른 피부가 벗겨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환자를 들쳐메고 들어오는 가족도 있었고 이미 여사제의 능력을 넘어서 손쓸 수 없는 환자도 있었다.

공포의 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와 살이 타는 끔찍한 냄새가 섞였다. 사람들을 뚫고 차원문이 아니라 달샘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다. 신성한 달샘에 뛰어들어 여신에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다.

“여사제의 말을 들으십시오!” 아직도 달샘가에 머물러 있던 미아가 동그랗게 모은 손을 입에 대고 소리쳤다.

아스타리가 라리아와 눈을 맞춘 뒤 신전 입구를 가리켰다. 라리아는 바로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인 뒤, 달샘에 뛰어들어 겁에 질린 기도자들이 모인 곳을 돌아 물을 툭툭 떨어뜨리며 군중을 헤치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잠시 후 충격에 빠진 얼굴로 나타난 라리아가 아스타리에게 말했다. “사방이 모두 불타고 있어요. 나무, 풀 모두요... 쿵쿵, 쿵쿵, 도시로 들어오는 길이 불에 막혔어요. 쿵쿵, 쿵쿵.”

“미아 님.” 겁에 질린 엘프의 비명 때문에 아스타리가 크게 소리쳤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미아가 이를 악물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스타리는 침을 삼켰다. 길니아스의 여왕에게는 남편과 딸이 있었다. 그들은 칼도레이도 아니었다. 아스타리는 불길이 미아를 삼키도록 두고 볼 수 없었다. “조금 있으면 너무 늦게 돼요. 저희와 함께 죽어도 의미가 없어요. 살아 계셔야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요!”

미아가 대답하려 입을 벌리는 순간 머리 위에서 끔찍한 소음이 들려왔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탈출하기에는 너무 빨리, 주홍빛으로 타오르는 거대한 무언가가 신전 지붕의 유리 돔으로 무너져내렸다. 날름거리는 화염에 휩싸인 거대한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달샘의 엘프들이 비명을 질렀다.

끊임없이 물을 뿜어내는 하이드네의 그릇에 거대한 가지가 걸리며 금쪽같은 시간을 벌어주었다. 아스타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엘룬께서 구해주셨어...’

석조 그릇에 금이 가더니 결국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

신성한 물이 쏟아졌다. 거대한 석조 그릇과 함께 하이드네 석상의 팔이 무너져 내렸다. 떨어져 내리는 조각이 석상의 머리를 때리자 머리가 굴러떨어지며 샘 안에서 구원을 찾던 나이트 엘프들을 덮쳤다. 달샘이 부서지고 신성한 물이 무고한 시민의 피로 빨갛게 젖은 잔디 위로 흘렀다.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미쳐버린 짐승처럼 밖으로 뛰어나간 엘프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을 휩쓸 화마뿐이었다.



검댕에 뒤덮이고 불이 붙은 채 차원문으로 쏟아져나오던 생존자들의 물결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끊어졌다.

안두인과 티란데는 아직 마법사의 성소에 서 있었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연기와 열기에 눈을 가늘게 뜨고 연신 기침을 하며 기다렸다.

차원문 하나에서 화염이 혀를 날름거리자 안두인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차원문 반대편에 누군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너무 약하거나 상처가 심해 차원문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꺼지지 않는 화염만 탐욕스럽게 혀를 날름거릴 뿐이었다. 가족도 아이들도 더는 구할 수 없었다. 여사제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미아 그레이메인 역시.

젠은 안두인이 곧 내릴 명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안두인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지금 목에 걸려 있는 명령을 말하지 않으면 다르나서스를 집어삼킨 시커먼 연기가 스톨윈드도 질식시킬 것이다.

안두인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심하게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차원문을 닫...”

이리저리 밀쳐지며 당황하는 나이트 엘프들의 비명을 가르고 끔찍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길을 비켜라!”

깊고 분노한 목소리였다. 길니아스 왕이 완전히 늑대 형상으로 변한 채 네 발로 마법사의 성소에 가득한 피난민들을 뚫고 쏟아져 달려오고 있었다. 연기로 가득한 방으로 들어온 젠 그레이메인이 차원문으로 곧장 달려들었다.

안두인은 생각할 새도 없이 젠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젠이 몸을 돌리며 어렵지 않게 안두인을 잡더니 위협하듯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발톱이 튀어나온 하얀 털북숭이 손을 들어 올렸다. 늑대의 형상을 할 때면 언제나 그렇듯 젠은 지금 분노에 거의 잠식된 상태였다.

“너무 위험합니다!” 안두인이 콜록대며 말했다.

젠의 늑대 얼굴이 안두인의 얼굴과 닿을 정도로 다가왔다. 사나운 목 울림과 함께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길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다.

“젠 님, 너무 늦었습니다!” 티란데가 외쳤다.

늑대인간이 티란데를 향해 달려나갔다.

젠은 티란데 앞에서 울부짖었다. “그 여자는 내 왕국을 가져갔어! 내 아들도 데려갔지! 내 아내마저 데려가게 할 수는 없네!”

그렇게 외친 젠은 안두인이 무슨 말을 해보기도 전에 연기로 가득한 차원문으로 뛰어들었다.



젠에게는 전쟁도 폭력도 잔인함도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도 낯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젠으로서도 차원문 반대편에 펼쳐진 두려운 광경은 난생처음이었다.

치유의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석상이 있던 자리에는 돌무더기와 부서진 석상과 피에 젖은 진창과 불타는 거대한 나뭇가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끔찍한 죽음의 악취와 연기가 민감해진 늑대의 감각을 덮쳐 숨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젠은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고 소리쳤다. “미아!”

“젠 님! 여기에요!”

선 목소리였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아스타리 여사제였다. 그녀와 마법사는 팔로 보이는 무언가를 누르고 있는 부서진 석상 덩어리를 들어 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미아...’

젠이 뛰어갔다. 공포와 분노가 휘몰아치며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힘이 솟아올랐다. 그는 커다란 돌덩이를 탁자 들듯 번쩍 들었다. 길니아스를 버리고 도망치기 전에 미아가 꿈쩍이도 아끼던 우스꽝스러운 탁자를 들듯 말이다.

“미아!”

미아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아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기적적으로 부러지지 않은 미아의 팔이 나이트 엘프 아기를 안고 있었다. 미아는 불길하게 조용했다. 아내가 잔뜩 흘린 피에서 나는 피비린내가 젠의 코를 자극했다. 화난 아이가 분질러 놓은 인형 다리처럼 미아의 다리가 기이한 방향으로 뒤틀려 있었고 뼈가 살을 뚫고 나와 있었다. 그리고 화상까지 입었다.

젠은 무력감과 고통에 빠져 아스타리를 돌아봤다. 그녀는 벌써 연기에 상한 목소리로 치유의 기도를 읊조리고 있었다. 아스타리의 손이 움직이자 허공에서 빛이 나타났다. 젠은 사랑하는 아내의 다리가 펴지고 뼈가 붙고 피부가 아물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미아가 힘겹게 눈을 뜨고 미아의 품에 있던 아이가 꿈틀거렸다.

연기 때문이 아닌 눈물로 젠의 눈이 따끔거렸다.

“엘룬께서 아직 저희 기도를 듣고 계시는군요.” 아스타리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과 경외로 환하게 퍼졌다.

미아가 남편에게 팔을 뻗었다. “젠... 나무가... 나무를 불태우고 있어요!” 미아는 과열된 공기에 폐가 상한 듯 격렬하게 기침했다. “아이를... 구하세요. 절... 두고 가세요.”

“그럴 순 없소!” 젠이 으르렁댔다. 젠과 미아는 함께 끔찍한 일을 견디고 함께 죽음을 마주했었다. 자신이 살아 있고, 그녀가 살아 있는 한 계속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둘 다 데려가겠소!”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나이트 엘프는 젠의 친구였고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을 맞았다. 수천 나이트 엘프의 집이었던 거대한 나무가 불타올랐고 수천 나이트 엘프가 모든 것을 잃고 산채로 불타 죽어갔다. 미아를 팔에 안고서 젠은 잠시 망설였다. 도망치는 것은 젠과 어울리는 일이 아니었다.

“저희는 저들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스타리가 다른 나이트 엘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젠은 아스타리가 그의 갈등을 눈치챘음을 깨달았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듯 탈출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아스타리의 말은 죽어가는 엘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도와주겠다는 의미였다.

젠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여신께서 그대들을 살려주시기를.” 그 말 외에 무슨 말을,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내와 마지막 피난민인 작은 나이트 엘프를 안고 겐은 마지막 차원문으로 달려 들어갔다.



아스타리는 자신이 할 일을 알았다. 신전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엘프 중 어머니와 아들로 보이는 엘프에게 팔을 뻗고 말없이 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말했다. “겁먹을 것 없단다. 이리 오렴.” 한쪽 팔로 어머니를 안고 다른 팔로 아이를 안은 채 아스타리는 흠뻑 젖은 흙 위에 주저앉았다.

텔드랏실에 마지막 남은 엘룬의 여사제 세 명은 기도했다. 치유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다. 자비를 빌었다.

그들의 여신이 아스타리의 노래를 들었다.

들으라, 달빛 아래에서
들으라, 강 옆에서
들으라, 사랑하는 이의 옆에서,
죽어가는 자의 외침을
죽음의 침묵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의 속삭임을...

아스타리의 마음에 깃털처럼 가볍고 꿀처럼 달콤한 잠이 자리 잡았다. 고통이 사라졌다.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아스타리 곁에 있는 모든 엘프가 같은 숨소리를 냈다.

불길은 잔인했다. 연기에 질식하고 화염에 살과 뼈마저 삼켜지고 오직 뼈만 남겠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리라.

여신의 빛, 여신의 사랑 속에 고통은 없었다. 어머니와 아이 모두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편안하게 숨을 쉬며 잠들었다.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아스타리도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에 저항하지 않았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날을 보는 게 우리 몫이 아닐 뿐이니.’

마지막으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아스타리는 잠에 빠져들었다.



“달아라!” 겐이 연기와 화염과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공포에 목이 잠겨 소리쳤다.

창백한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마법사가 들어 올리고 있던 손을 내렸다.

마지막 차원문이 사라졌다.

젠은 해냈다. 젠은 미아만이 아니라 나이트 엘프도 안고 있었다. 안두인은 방금 나온 세 명이 다쳤는지 알 수 없어 빛을 소환했다. 지난 며칠 동안에만 수천 번도 넘게 빛의 도움을 구했고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빛이 내려와 상처를 치유했다.

아니, 모든 상처는 아니었다. 젠이 바닥에 주저앉아 탈진한 미아를 안고 있었다. 티란데가 아이를 안아 들었다. 젠은 심호흡을 한 뒤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티란데를 올려다봤다. 백 마디 말보다 말없이 올려다보는 젠의 표정에서 다르나서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알 수 있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젠이 말했다. “나무가 불타고 있네.”

“다르나서스 말입니까?” 티란데가 물었다. 말이 목에 걸린 것처럼 들렸다.

“세계수 말일세. 유감이네, 대여사제여. 호드가 세계수를 불태웠네.” 연기 때문에 충혈된 젠의 눈이 가늘어졌다. “놈들은 이 대가를 치를 걸세. 맹세하겠네,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안두인은 충격으로 몸이 차게 굳었다. 세계수가 불타고 있다니, 텔드랏실이, 은신처가, 마을이, 언덕이, 골짜기가,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다니.

티란데는 눈을 감았다. “장담했건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티란데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티란데는 눈을 뜨고 자신의 팔에 안긴, 온통 검댕이 묻었지만 온전한 아이를 바라봤다. 건강했다. 살아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아이의 이름이 뭐죠?” 티란데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아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럼, 아이야. 네 이름을 피넬이라 해야겠구나. ‘마지막’이라는 뜻이지. 네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칼도레이니까 말이야.”

세계수는 단순한 도시 이상이었다. 세계수는 셀 수 없이 많은 나이트 엘프의 집이자 영토였다. 다르나서스 이외의 지역에 나이트 엘프가 얼마나 있을까? 너무나 적었다. 이제 그들이 남아 있는 나이트 엘프 전부였다.

실바나스 윈드러너는 종족을 학살했다.

안두인도 실바나스가 이기적이고 오만하며 교활하고 집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런 그도 이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안두인은 흐릿해진 눈으로 아내를 안고 있는 젠 그레이메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진심으로 실바나스를 증오하는 젠조차 이번 일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누구도 실바나스가 교활함 이상으로 잔인할 줄은 몰랐다. 세계수를 파괴할 이유도 전략적인 당위성도 없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실바나스의 결정 때문에 얼라이언스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쳤다.

지금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실바나스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 그녀가 공격하기 전에 공격할 기회가 있었다. 안두인은 그 기회를 거부했다. 이제, 안두인은 꿈속에서 수없는 목소리에 시달릴 것이다. 실바나스를 완전히 차단할 때까지, 그 일을 해낼 때까지,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안두인과 티란데의 눈이 아이의 머리 위에서 마주쳤다. 피넬이 칭얼대자 티란데가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안두인으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나이트 엘프 대역사제의 노래가, 너무나 부드러운 노래가 들려왔다.

작은 아이야 들어보렴
영원히 계속될 나의 비가를
세계수의 이야기를
모든 꿈이 스러져간 이야기를
위대한 가지가 품었던 꿈의 이야기를

안두인은 검댕이 묻은 소매로 젖은 눈을 훔쳤다. 자신이 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일로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안두인은 의지를 다졌다. 이제 다른 길은 없었다.

다른 선택은 없었다.

의심도 없었다.

후회도 없었다.

전쟁이다.

CREDITS



NOVELLA CREATED BY:

Alex Afrasiabi, Hector Bolanos, Caroline Wu Bonti,
Michael Carrillo, Sean Copeland, Steve Danuser,
Keith Ewing, Cate Gary, Christie Golden, Adam Heine,
Erik Jensen, Julie Kimura, Christi Kugler,
Brienne M Loftis, Allison Monahan, Ken Murayama,
Justin Parker, Glenn Rane, Chris Robinson,
Robert Simpson, Varnish Studio, Inc.

SPECIAL THANKS:

World of Warcraft Team
Story and Franchise Development
Creative Services
Localization and Quality Assurance